

F O L L O W Y O U R O W N S T A R



CAPTAIN GRANDE DATE MOONPHASE

울트라 썬 엘리트 무브먼트와 문페이즈 디스플레이가 결합된 이 시계는 항해사들이 밤하늘에 뜬 별을 보며 항로를 탐험하던 시대를 연상시킵니다. 복잡한 기능에 비해 단순한 외관을 지닌 칼리버로 구동되는 이 시계는 먼 옛날 바다를 호령하던 선장들이 보여준 뛰어난 정확성에 경의를 표하는 제품입니다. 시적인 아름다움과 제니스 매뉴팩처의 정통 위치메이킹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ZENITH
SWISS WATCH MANUFACTURE
SINCE 1865

DOMESTIC

갤러리아 백화점 EAST 02-512-6088
롯데백화점 예비뉴얼 02-2118-6225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111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10-4128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960-4723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38-6031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733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83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1346
AK플라자 분당점 031-8023-2191

DUTY FREE

롯데면세점 소공본점 02-759-6776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02-3484-9658
롯데면세점 부산점 051-810-3862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032-743-7923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3876
신라면세점 제주점 064-710-7345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051-749-1352
워커힐면세점 02-450-6364
한국관광공사면세점 인천공항점 032-743-2109

조선일보
Style
AUGUST 2014 vol.112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Paul Smith

OMEGA

www.omegawatches.com



Ω
OMEGA
De Ville Butterfly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26



30



미국을 대표하는 1백77년 역사의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 전 세계 상위 0.02%의 최상급 다이아몬드만 사용해 다이아몬드의 권위자로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 최초로 6개의 프로그이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들어 올려 빛의 투과율과 광채를 극대화하며 디자인의 혁신을 이끈 티파니 세팅 링은 1886년 선보인 이래 반지 중의 반지, 웨딩 링의 대명사로 불린다. 문의 547-9488



37



10

- 16 **1백 세 시대, 경계를 넘는 일의 미학** 수명 1백 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아무래도 일의 여정이 더 길아질 수밖에 없을 듯하다. 누구에게나 절대적인 사망일 필요는 없지만 한 가지 직업의 정체성에 갇혀 있지 않는 '리네상스식' 사고, 일의 경계를 중요하게 넘나드는 네오 리네상스를 꿈꾸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곱씹어본다.
- 18 **ANOTHER TUXEDO** 화려한 칼라와 패턴, 경쾌한 셔츠, 보타이로 멋을 낸, 조금 다른 턱시도.
- 20 **HANDY CANDY** 심플한 룩도 금세 드레스업(dress-up)시키는 보색감이 아름다운 주얼 클러치의 매력.
- 22 **PRESTIGE BAGS** 세월이 지나도 가치를 더해줄 럭셔리 브랜드의 추천 웨딩 백.
- 24 **FABULOUS EDITION** 신부의 화장대와 피부를 아름답게 빛내줄 럭셔리 패키지가 뷰티 아이템.
- 26 **시간 위에 흐르는 재즈 선율** 스와임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음악 축제, 몽트리 재즈 페스티벌, 시계 회사 파르미자니 클러시가 후원사로 나서면서 더욱 풍부해졌다.
- 30 **ETERNAL PROMISE** 꽃과 나무의 푸른 잎이 물들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 그 친밀한 축복 속에서 사랑의 사이이 울려 퍼진다.
- 36 **THE PERFECT SET** 결혼식을 앞둔 여자들이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 뷰티 브랜드를 대표하는 웨딩 세트라면 주는 사람은 물론 나를 위한 투자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듯.
- 37 **LACY FANTASY** 사랑스러움과 팜 파탈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2014 F/W 웨딩드레스 컬렉션.
- 44 **EXPLORE OCEAN** <스타일 조선일보>는 이월부터 흥미로운 시계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오메가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첫 번째 스토리는 오메가의 핵심 라인인 마스터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다.
- 46 **TIME CHANGER** '혁신',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하는 태그하이어가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이자 세계적인 유망주인 손흥민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 48 **THE WOMEN OF GRACE** 2백70여 년이라는, 역사상 가장 전통 깊은 워치메이커로 명성을 공고히 다져온 브랜드 불랑팡. 'The Women of Grace'라는 테마 아래 여성 워치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이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 진행됐다.
- 49 **THE GREATEST LOVE**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국내에 브라이덜 컬렉션을 선보인다.
- 50 **TRUE LOVE** 평생을 약속하는 사랑의 고백, 그 순간을 빛내줄 고귀한 안약의 징표, 티파니 웨딩 링 컬렉션.
- 51 **MOST DESIRED** 할리우드 영화와 향몽의 역사를 기록해온 해밀턴이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칼렛톤 레디의 무즈로 배우 유안영을 선정했다.
- 52 **FACIAL COMFORTS** 떨과 피지로 얼룩진 피부에 얼음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안겨줄 쿨링 화장품이 필요한 순간.
- 53 **DUAL EFFECT** 파우더의 은근한 아름다움과 아이리셔의 강렬함을 모두 갖춘 새로운 텍스처의 아이섀도우, 나스 듀얼 인텐시티 아이섀도우를 소개한다.

Style 조선일보

Issue.112 August 2014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메일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숙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2·3·4·9·10월은 첫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FENDI.COM

FENDI

Jewel DIAMOND FANTASY

숨김없이 맑은, 영롱하게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흠뻑러진 아름다운 주얼리 컬렉션.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 하늘에서 쏟아져 나오는 영롱한 빛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루채라 반글 4백50만원, 벨로루체 솔리테어 링 모두 가격 미정, 화이트 골드와 핑크 골드 가드 링 각 69만원, 아침 이슬과 같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표현한 모닝듀 클래식 이어링 78만원, 화이트 골드 소재 루채라 펜던트 1백67만원 모두 골드듀. 에디터 **배미진**



Fashion TAKE A BOW

이제 도트, 체크, 컬러감을 더한 색다른 보타어로 개성을 드러낼 것.

(오른쪽 윗부터 시계 방향) 살바 메일로 포인트를 준 유나크란 그라미 살크 보타이 35만원 코사니에레도리 by 10 크로스 코도, 에스나한 프린트가 돋보이는 레드 보타이 110만원 칼프 로렌 블루 리본, 깔끔한 인상을 부여할 코발트 블루 살크 보타이 19만원 칼랑 울드 잔잔한 도트 패턴의 살크 보타이 23만원 브리오니, 선명한 핑크 컬러가 개성 있는 살크 보타이 22만원 프린트 보타이 배바, 원형 프린트로 포인트를 준 스카이 블루 살크 보타이 22만원 구찌, 핑크와 블루 컬러가 조화로운 체크 살크 보타이 32만원 톨 포드, 에디터 **권유진**



Beauty PINK BLOOMING

여러러한 베이비 핑크, 내추럴한 인디언 핑크, 생기가 느껴지는 자줏빛 핑크... 신부의 입술에서 이리저리 꽃 한 송이가 수줍게 피어올랐다. 다양한 피부 톤에 어울리는 6개의 로즈 핑크 립스틱. (맨 윗부터 차례대로)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크리스탈 립 스틱**은 미세한 시어 입자가 입술에 완벽하게 밀착되어 은은한 광택이 들게 하며, 살구 씨 오일, 시어버터가 들어 있어 쉽게 건조해지지 않는다. 하얀 피부 톤에 더욱 잘 어울리는 **색상디디(3.8g 3인용천원대)**, 꽃에서 볼 수 있는 47가지 컬러를 립스틱에 담은 **입성로랑 루주 벨리페**는 부드럽게 발리는 크리미한 텍스처와 따로 립밤이 필요 없을 정도, 글로시한 광택이 입술을 볼륨감 있게 만든다(4g 4인용대). 평평한 입술이 고만이면 **디올 루즈 디올**을 선택하자. 허탈루르신의 플럼핑 효과가 입술이 도통해 보이며, 세포 재생을 활성화하는 추출물이 건조하고 갈라진 입술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3.5g 4인용). **조르지오 아르마니 루즈 엑스티미**는 아미 에스티나나 피로연에서 더욱 빛을 발할 컬러. 여러 겹으로 코팅한 펄 입자가 다양한 빛으로 반사되어 반짝이는 입술을 만든다(4g 3인용천원대). **슈에무라 루즈 인리미티드**는 입술에 편안함과 촉촉함을 남기는 매트 텍스처 기술과 하이브리드 피그먼트가 처음 색상 그대로 유지시키며(3.7ml 3인용천원대). 화사한 자줏빛 핑크가 인색을 한 톤 밝게 해주는 **립글루 루즈 인 리브**는 훌륭한 발색력 덕분에 여러 번 덧바르지 않아도 선명한 색을 표현한다(4.2ml 3인용천원), 에디터 **이혜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RUNWAY BRIDE

1970년대 패션 아이콘 비앙카 재가 웨딩드레스로 선택한 입성로랑의 팬츠 슈트, 저를 린 케네디 오나시스의 결혼식을 빛낸 발렌티노의 미니드레스는 반세기 가 다되어가는 지금까지 패션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웨딩 룩. 최근에는 케이트 미들턴의 세라 버튼 웨딩드레스와 이 때부터 우리나라 신부들은 어깨를 감싸는 웨딩드레스를 선호하기 시작, 릴리 앨런, 카라 나이틀리, 포피 밀레반까지 이어지는 칼라가 펠트 웨딩드레스는 하이 패션에 목매는 멋쟁이 여자들의 웨딩드레스 로망을 공개하게 되어오게 했다. 그리고 2014 S/S 시즌 런웨이에서는 그대로 면사포만 쓰면 웨딩드레스로 입기에 충분한 룩이 도화적인 자태를 뽐내며 곳곳에 등장했다. 먼저 꽃 잎 모양을 이쁘리케 장식한 칼프 로렌의 화이트 롱 드레스와 블루마린의 깃털 장식 튜브 드레스는 걸을 때마다 풍성한 실루엣을 연출하며 웨딩 컬렉션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모스카노로 넘어가면 피로연을 위한 드레스가 줄을 잇는다. 미나말한 슬리브리스 톱과 볼륨감 있는 타이드 스커트를 결합한 살구색 미니드레스, 아일라과 자수로 뒤덮인 레이스 소재의 화이트 드레스 등등. 특히 네크라인, 소매, 밑단에 개더를 잡아 앙사블 이어 붙인 화이트 드레스에는 타이드까지 매치해 그대로 착용으로 직행해도 좋을 정도. 얇은 오트지예 군데군데 프린트를 장식한 칼빈 클라인 컬렉션, 허리부터 풍성한 리본이 드리운 튜브 롱 드레스를 선보인 디스퀘어2, 코르셋으로 조인 허리와 둥근 볼륨의 실루엣을 강조한 사샤 오토 쿠튀르 컬렉션의 화이트 드레스 역시 신부의 낭만을 미나말하게 표현했다. 실용성과 판타지를 더한 하이 패션의 드레스 룩을 보고 나만의 웨딩드레스를 꿈꿔보는 건 어떨는지. 에디터 **이혜진**



Exhibition (에드바르트 뭉크-영혼의 시展)

실존의 고통을 독창적인 언어로 표현한 강렬한 작품 세계로 유명한 에드바르트 뭉크(1863~1944). 동전에 초상을 새긴 정도로 미국 노르웨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그의 창조적 영혼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표현주의 미술의 선구자로 꼽히는 뭉크 회고전 (에드바르트 뭉크-영혼의 시 (Edvard Munch and the Modern Soul展))이 서울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오는 10월 12일까지 열린다. 모두 99점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꽤 풍부하고 밀도 높은 콘텐츠를 선사한다. 특히 뭉크는 대다수의 화가들과는 달리 노르웨이를 방문하지 않는 한 직접 접할 기회가 별로 없는 인물인지라 더 가치가 있다. 이번이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잘다체를 알고 불온에 사탕리는 존재를 투영한 대표작 '절규'일 것이다(색판화 버전). 이 작품의 크레용 버전은 2012년 당시 최고 경매가를 경신하며 한화 1천3백만원에 낙찰돼 화제가 됐다. 그 외에도 사랑, 불안, 고통 등 인간이 지닌 다양한 감정을 테마로 한 '생의 프리즈' 연작, 성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관음미미져 느껴지는 매혹적인 자태의 성모 마리아로 강한 인상을 남긴 '마녀', 겨울밤의 별이 사정적인 느낌을 자아내 고통과 비교되는 '별이 빛나는 밤', 동일한 소재지만 아득고 강렬하게도, 소박하게도 표현해낸 47지 버전의 '카스' 시리즈, 노년기의 자화상 등 볼거리가 풍성하다. www.munchsou.com 에디터 **고성연**



PRADA



1 웨딩 부케를 향상화한 지.아 부 케 핀던트 네크리스 1백90만원대 **골든듀**, 2 불꽃 모양의 자수 패턴과 주얼 장식이 유니크한 클 러저, 23X23cm, 3백만원대 **블가리**, 3 아름다운 레이스 장 식의 마에이드 드레스 가격 미정 **모크 할라에 by 소우**, 4 핑크 컬러의 라운드 프레임 선글라스 44만5천원 **랑방 by 세원 ITC**, 5 불 드한 디자인의 골드 메탈 밴글 90만원대 **토즈**, 6 나비 패턴을 다룬 자개 다아걸의 드릴 프레스타지 비터블라이 워치 28만9천원대 **오메가**, 7 화려 한 스와로브스키 원석으로 장식한 핑크 밴글 2백38만원 **구찌**, 8 특별한 날 을 위한 페리에 주에 벨레포크 로제 심메인 60만원 **페리에 주에**, 9 스와로 브스키 장식으로 화려함을 더한 액자 95만원 **제이스 트롬워터 by 더 갤러리아**, 10 나비가 내보냈은 다이아몬드 메탈스 헤어밴드 가격 미정 **그라프**, 11 여성스러운 동백꽃 모티브의 핏 드 가젤리 아 이어링 1천8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12 드레스한 심메인 컬러의 보이 백, 28X16cm, 6 백만원대 **샤넬**, 13 주얼 장식과 메탈 핑크 컬러의 가 죽이 트랜드한 스틸레토 힐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블가리 02-3479-6077 **세원 ITC** 02-3218-8376
토즈 02-3438-6008 **페리에 주에** 02-3466-5700
구찌 1577-1921 **소우** 02-541-7077 **더 갤러리아** 02-3449-4199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샤넬 02-543-6700 **오메가** 02-511-5797
그라프 02-2256-6810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골든듀** 02-3415-5796

for her Selection

신부가 주인공인 웨딩 데이만큼은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아이템을 마음껏 즐길 것. 눈부시도록 하얀 레이스 드레스와 달콤함이 묻어나는 핑크 컬러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ung eun*



BURBERRY

버버리의 신상품 블룸스버리를 소개합니다
 BURBERRY.COM

신상품 소개
 버버리 코리아



1

2

1 니트 소재의 유니크한 블루 보타이 19만원 **량방 울모**, 2 각자 패턴으로 세련미를 더한 재킷 3백32만원대, 실크 소재 맨조 1백44만원, 화이트 셔츠 가격 미정, 보타이 21만원, 포켓 스카어 17만원 모두 **구찌**, 3 우아한 곡선 디자인이 눈에 띄는 노드 칼렉션 남성 밴드 링 48만원 **골든듀**, 4 라인이 잡혀진 레이스업 드레스 슈즈 1백50만원 **통포드**, 5 매끈한 실바 라인이 돋보이는 데쉬 민트필 66만원 **S.T. 유통**, 6 달콤하고 프러시한 코코넛 향의 버진 아일랜드 워터 오드 투왈렛, 75ml, 34만8천원 **크리드**, 7 세련된 강성의 화이트 칼라를 입은 세계 최초, 최강량의 DSLR 카메라 EOS 100D 화이트 대블렌즈 키트 가격 미정 **캐논**, 8 브랜트 시그니처인 엠벨링 모터브의 카프스 링크 52만원 **몽블랑**, 9 클래식한 숫자 인덱스와 심플한 크로노그래프 카운터, 가죽 스트랩의 조화가 멋진 캐러라 칼라라 1887 크로노그래프 43mm 7백70만원대 **태그호이어**, 10 티라이트와 코르크 케이스가 한 세트인 삼페인 트래이 가격 미정 **통포드**, 11 클래식한 디자인의 블랙 안경 69만5천원 **린다 페로우 리스 by 10 프로스 조모**, 12 부드러운 송아지가죽으로 만든 블루 칼라의 브리프케이스, 42x32cm, 2백76만원 **구찌**, 13 도트 패턴의 하늘색 실크 타이 21만8천원 **칼포 로렌 블랙 라벨**.

량방 울모 02-3438-6254 **구찌** 1577-1921
통포드 02-6905-3640 **S.T. 유통** 02-3449-4494
크리드 02-3449-4545 **골든듀** 02-3415-5796
칼포 로렌 블랙 라벨 02-545-8200 **10 프로스 조모** 02-3018-1010 **통포드** 02-2188-5100
몽블랑 02-3440-5734 **캐논** 1588-8133
태그호이어 02-776-9018



2

스타일리스트 유영환 이스타일 에디터 박유진



8



9

for him Selection

모든 룩을 블랙 & 화이트 컬러로 통일할 필요는 없다. 멋스러운 네이비 패턴 텍시도에 블루와 블랙 컬러로 포인트를 준 감각적인 텍시도 스타일.
 photographed by kim do hyun



10



6



11



3



5



12

13



4



TASAKI

60th Pearl & Diamond Jubilee

ONE ESSENTIAL

NEW GENERATION

피부정화 첫 단계의 에너지 부스팅 에센스
피부정화 - 자생 - 활력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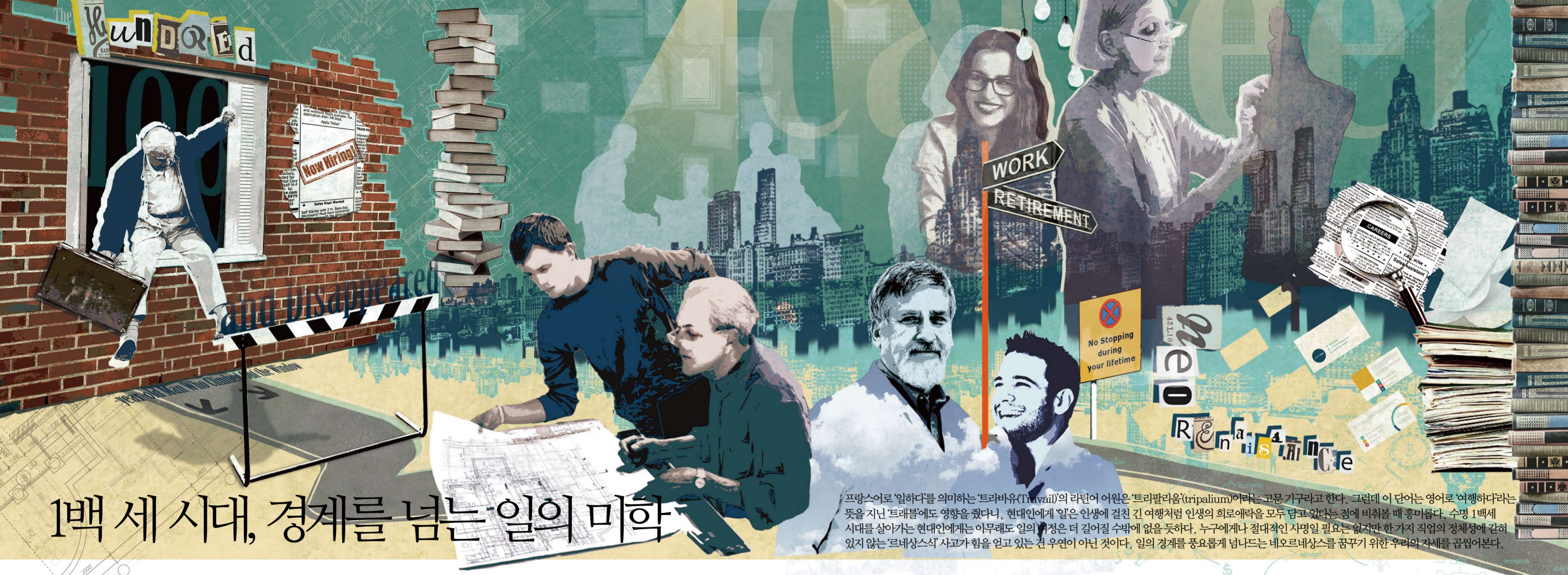


Dior

피부가 더욱 순수해지고 강렬한 래디언스로 빛이 납니다.

수십억: 이는 매일마다 우리 피부에 쌓이는 오염 유해요소, 미세먼지, 공해입니다. 이 유해요소들은 피부의 자생 능력을 떨어뜨리고 피부를 칙칙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피부는 숨을 쉬지 못하고, 래디언스를 잃고 피곤해 보이게 됩니다. 피부정화 연구의 선구자, 디올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디올 연구를 통해 개발된 레드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농축되어 있으며 New 제너레이션 원 에센셜은 피부 유해요소들이 정화되도록 도와줍니다. 피부는 더욱 빛이 나고 피부 에너지에 활력을 부여합니다. 효과를 입증하는 증거: 여성들이 인정한 래디언스, 이미징으로 측정된 매끈해진 피부.

매일 하는 피부 정화: 매일 아침 & 저녁, 기본 스킨케어 시작 전 사용하여 효과가 나타납니다.



1백 세 시대, 경계를 넘는 일의 미학

1백 세 생일에 양로원을 탈출해 기상천외한 여정을 겪는 알란 갈손이란 가상 인물의 유쾌한 모험담으로 전 세계적으로 8백만 부를 넘은 판매고를 올린 소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국내 시장에서도 오래도록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메가셀러의 작가 요나스 요나손은 고질적인 허리 통증과 스트레스로 고생하다가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과감히 자신의 사업을 정리하고 ‘늦깎이 데뷔를 한 작가다. 백 세 노인 현상’이라는 화제어를 맞이할 만큼 첫 작품으로 데뷔를 티프터 단숨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는 이 소설이 나온 2009년에 선 살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요나손은 기자와 PD, 그리고 미디어 계통 사업가 경력에 있던 했지만 전업 작가로, 그것도 40대 후반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건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니다. 이 대목에서 문득 ‘아직 못 이룬 꿈이 소설을 쓰는 것이라는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의 소망이 떠오른다. 팔자와의 인터뷰 중에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로 맨스 소설 작가로 살고 싶다가에 “이제부터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라는 웅얼의 멘트를 슬쩍 없앴더니 그는 찬찬히 미소를 지으며 “맞다. 안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맞장구쳤다. 80대의 나이로 이미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멘디니가 누구인가. 대학 시절에는 엔지니어링을 전공했다가 건축 설계로 진로를 바꿨고, 15여 년을 당대 최고의 건축, 디자인 잡지 <도무스>를 비롯한 여러 전문지의 편집장으로 일했으며, 50대에 이르러서야 멘대를 놓고는 직접 스케치를 하고 사물을 빛어내는 ‘크리에이터의 길로 들어선, 나름 ‘변신의 귀재’가 아니된다.

1백 세 시대의 사명처럼 여겨지는 일의 ‘경계 확장’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융합의 시대. 한 우물만 파다 막을 내리는 인생에 만족하지 않고 직업 전환을 피하고 부단히 일의 지평을 넓히는 행보가 꽤 당연하게 느껴지는 추세다. 하물며 세 자릿수 수명을 쉽게 거론하는 ‘1백 세 시대’에서는 이 같은 ‘커리어 다모작’이 생계를 위해서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든, 혹은 ‘무위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든 그 등기는 저마다 다름지언정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인생의 사명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그렇다고 ‘도대도 갖추지 못한 새 일에 무작정 뛰어들기에는 조심스럽다. ‘경계 무너트리 기’라는 도전이 멘디니 같은 크리에이터에게는 웬지 상대적으로 더 무난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기에, 흔히 과학자, 건축가, 디자이너, 작가 등 ‘창조 계급’으로 일컬어지는 직군에 속한 이들이 부러움을 사는 것도 사실이다(현실은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선망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뜨는 직업을 겨냥해 그 분야에 매진한다는 건 무모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 예측대로 이뤄지는 것도 아닐뿐더러 나의 본질과 맞지 않으면 참 괴로운 게 현대인들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일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렇다. 직업의 세계에서

도 예측은 결코 쉽지 않다. 해마다 막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는 이탈리아의 한 스타 디자이너는 사석에서 20세기 후반 일부 디자이너들이 ‘셀럽’ 수준으로 각광받으면서 본인도 큰 수혜자가 되긴 했지만 다음 세대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고개를 가우뚱거렸다고 한다. 3D 프린팅이나 기업의 인하우스 시스템이니 하는 환경의 변화로 개개인의 디자이너가 브랜드를 지닌 스타가 되는 일은 더 이상 쉽게 볼 수 없게 될지도 모으며, 심지어는 ‘장인’처럼 희소한 존재로 남지 않을까 싶기도 하다는 것. 그래서 ‘아빠를 닮고 싶어 하는 자’의 아이들에게는 디자인 보다는 창조력의 근간이 되는 순수 미술을 배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쌓도록 하고 있다고 털어 놓기도 했다. 인류 문명을 지탱해온 뼈대는 사라지지 않으며 소위 ‘경계의 확장’이란 것도 탄탄한 기초 체력을 바탕으로 해야만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아쉬울 것 없는 이들도 일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물론 ‘은퇴는 자유다(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배경과 환경이 갖춰져야 하겠지만), 젊은 시절 빨리 기반을 잡고 돈을 충분히 모아둬으로써 ‘노인’ 소리를 듣기 전부터 일찌감치 일을 그만 두고 유유자재 살아가기를 바라는 이들이 부지기수이기도 하다. 웰스트리트의 살아 있는 전설인 피터 린치는 10대부터 학비를 벌기 위해 일을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핀드매니저로 성공 기도를 달리던 40대 중반에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고 은퇴해 부러움을 샀다. 하지만 그는 정말 일을 완전히 그만뒀을까? 이제 70세의 노장이 된 그는 파트타임으로 투자 자문을 하면서 주로 젊은 애널리스트들을 위한 ‘멘토’ 역할을 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며, 자선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그는 기부도 투자의 한 형태라는 지론을 갖고 있다. 그래서 기부를 하더라도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선호한다고 한다. 예컨대 자신의 터전인 보스턴에서 1970년대에 생겨난, 문화인을 위한 신년 전야제 행사, 청소년 교육에 초점을 맞춘 지역사회 서비스 등이 그 대상으로, 실제로 국경을 넘어 널리 확산된 프로그램들이다. 피터 린치는 은퇴 뒤 유급 노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을 해온 셈이다. <리쉬>의 저자 토드 부크홀츠는 이렇듯 아쉬울 것 없을 듯한 부자들이 평생 일을 손에서 놓지 않는 예가 많은 이유는 인간이 도전을 통해 ‘도파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멘데의 치료약은 오락거리가 아니라 해야 할 그 무엇, 관심을 쏟아부를 만한 대상을 찾아내는 것’이라는 존 가드너(미국의 시인 단체 창설자)의 주장과도 맞닿는 얘기다. 또 나이가 차고 돈에 쫓돌리지 않더라도 일 중독에 빠져 좀처럼 그만두지 못하는 ‘게미형’ 인간도 많다. ‘게미는 미래를 위해 살지만, 막상 미래가 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항상

아는 건 아니다’라는 게 노동 철학의 대가 조안 B. 사울라의 설명이다. 그런가 하면 고대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는 ‘시기와 경쟁’이라는 말로 개인에게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삶의 빛이기도, 짐이기도 했던 일의 역사

이렇듯 일을 둘러싼 동기와 의미는 복잡다단하다. 시대에 따라, 국가의 노동환경에 따라, 저마다의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에서 일의 존재감은 다를 수밖에 없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육체노동과 봉사를 강제적인 ‘고통’으로 여겼다고 한다. 따라서 고스란히 노예의 몫으로 떠넘겼다. <워킹 라이프(The Working Life)>란 책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돈을 위해 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저주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다가 로마제국이 몰락한 이후 수도사들이 농부로, 장인으로, 기술자로 ‘조용히’ 활약하면서 중세의 마을과 도시를 발전시켜가 시기가 변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인간의 의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은 성실히 하되, 부의 축적에 대해서는 경계할 것을 권장하는 풍토가 자리 잡았다. 일의 미학을 꽃피운 르네상스 시대. 손으로 아름다움을 빛어내는 ‘호모 파베르’로서의 인간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다는 시기가 썩었다. 장인들, 특히 한 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동경의 대상이 됐다. 저자인 조안 B. 사울라의 표현처럼 일에 ‘매력’이라는 낭만주의적 요소가 녹아들었다. 하지만 갈뱅과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영향받고 있는 노동 윤리를 들고나왔다. 일은 신의 소명이며 직업에는 귀천이 따로 없으므로 어떤 일에도 근면하게 임하라는 가르침을 설파한 것이다. 미국 북부를 비롯해 일부 북유럽 국가들에 이라한 프로테스탄트 노동 윤리가 뿌리를 내렸다. 동양권에 널리 퍼졌던 불교는 다른 관점을 제공했다. 어찌봐 세상은 덧없고 인생은 괴로운 것이므로 정신을 수양해야 하는데, ‘정직한 일은 그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시기다. 어쨌거나 오늘날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태도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을 ‘삶의 목적’으로 지향하는 문화가 퍼져 있다. 따라서 유급 노동이 일의 중심으로 당연시되고, 명함이 ‘정체성’이나 ‘자존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대의 문화에서는 많은 이들이 ‘배짱’이 부러워하지만 실제로는 단기간이라도 자발적 배수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심지어 부양가족이 없고 가난하지 않은 ‘솔로족’조차도).

‘네오르네상스’식 일의 철학은?

마르크스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과 동일시하는 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냥꾼이나

비평가가 되지 않고도, 아침에는 사냥을 하고 오후에는 고기를 잡으며 저녁 식사를 마치면 비평을 할 수 있는 세상”을 이상향으로 묘사했다. 대중이 아마추어 수준에서 여러 가지 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르네상스인들은 프로 수준으로 다양한 일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근대에 들어서는 한 가지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이 보편적으로 부각되고, 분업이 갈수록 더 전문화 양상을 띠었지만 말이다. 흥미롭게도 최근 각광받는 ‘T 지형’, 다시 말해 깊이도 있고 폭도 넓은 인재상은 최고의 르네상스인들의 면모와 부합한다. 무모한 도전은 아닐 것이다. 1백 세 시대에는 자신의 경계를 T형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인생 여정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다만 우리에게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의 주인공 공 알란처럼 노의장과 재기를 과시할 수 있는 건 소설에서나 가능하다고 지레 포기하지 않는 자세, 나이의 경계 역시 깨닫지 않는 시선이 필요하다. 언젠가 프랑스의 한 바이어가 무심코 던진 ‘각성의 멘트’가 있다. “세상에, 이 젊은 디자이너 참 쨍했다.” 그 디자이너는 40세를 넘긴 나이였다. 굳이 ‘1만 시간의 법칙’에 따르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영역에서 기초를 제대로 다졌다고 치면 10년, 20년은 내용을 쌓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이 밑바닥에 깔린 말이었다. 또 한 가지, 르네상스 시대와 같은 무대를 꿈꾸는 건 크리에이터 같은 소수의 집단만 가능하다고 미리 체념하지는 말자. 어느 영역에서나, 누구나 창의적일 수 있다. 건축가이자 발명가, 조각가, 디자이너 등 다방면으로 활약해 ‘런던의 다빈치’로 불리는 토머스 헤더윅은 “내가 만난 사람 중 가장 창의적인 인물은 홍콩의 부동산 개발업자였다”라고 했다. 언론에서는 심심하면 가장 없는 직업 목록을 발표하지만 그러한 예단은 맹신하지 말자. 비즈니스와 정치, 예술을 조화롭게 버무린 영국 잡지 <모노크>은 2007년 창간할 때부터 다른 미디어업체들과는 달리 ‘종이에 집중했다. 물론 웹사이트에도 기사를 실지만, 이는 종이판 정기 구독자들한테만 제공한다(그래서 날권으로 1년 치(12권)를 사는 것보다 1년 정기 구독료가 더 비싸다). 독창적인 글과 구성을 내세워 너도나도 ‘조개 팔기’를 하는 ‘마이크로 콘텐츠’의 시대에 역발상 전략을 취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우리의 존재는 분명 ‘우리가 하는 일’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존재를 넘어서도록 풍부하게 이끌어줄 수도 있다. 일 자체를 미치도록 즐겨 그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자기 목적적 경험(autotelic experience)이 그런 삶의 중추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그런 이상에 조금이라도 가까워 소중한 일의 발견은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 일할 자유, 일터에서의 자유, 그리고 일로부터의 자유가 모두 손쉽게 얻을 수 없는 무형의 자산인 것처럼. “당신 스스로 당신이 바라는 세상의 변화가 되어라”라는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NS** 에디터 **고성연**

another Tuxedo

화려한 컬러와 패턴, 경쾌한 셔츠, 보타이로 맛을 낸, 조금 다른 턱시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턱시도 왼쪽에 있는 오디오는 이탈리아 최고이자 디자이너 클라우디오 로타 로리아(Claudio Rotta Loria)가 디자인한 아틀로그 애니버서리 리미티드 에디션. 구조적인 디자인과 크기, 풍부한 사운드가 특징을 압도한다.

예복의 영역을 넓히는 화려한 턱시도

회사와 집을 오가며 평범한 일상을 사는 남자는 턱시도를 평생 단 한 번도 입을 일이 없을 수도 있다. 게다가 온갖 무늬와 색깔, 독특한 소재를 입은, 어찌 보면 밤무대 의상(?)을 연상시키는 턱시도는 말할 것도 없다. 계절과 시대에 따라 변화해온 웨딩드레스와는 달리 신랑의 예복은 블랙 슈트와 턱시도라는 틀을 꾸준히 유지해왔다. 화려한 옷차림을 즐기는 셀러브리티 역시 결혼식에서도 클래식한 기본 턱시도를 고집할 정도. 톰 포드에겐 의외로 국내에 수입된 턱시도 종류가 네이비 컬러에 두꺼운 블랙 솔칼라를 덧댄 디자인으로 단 한 벌뿐이다. 몇 시즌 전부터 슈트를 일상복에도 활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예복으로만 입을 수 있는 턱시도를 찾는 비율은 많지 않다고. 반면 돌체앤가바나는 블랙은 기본이고, 화이트, 버건디 등 하이 패션 브랜드 중에서 가장 많은 턱시도 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다. 잔잔한 화이트 도트 무늬 턱시도와 베스트, 핀터 화이트 셔츠와 도트 무늬 보타이를 매치한 룩은 과하다기보다는 아주 세련된 느낌을 준다. 본식은 무조건 블랙 슈트를 선택하는 대부분의 브랜드와는 달리 작은 패턴이나 컬러를 입은 디자인을 본식 턱시도로 선호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지난해 결혼한 이병헌은 본예식에서는 기본 블랙 슈트를 입었지만, 피로연에서는 자카드 패턴을 가미한 로드엔데일리의 화려한 턱시도를 선택했다. 블랙 솔칼라 디자인에 빗살무늬로 도톰하게 도

드라진 패턴은 적당히 화려하면서 블랙 컬러의 맛과 멋을 덜어주는 듯했다. 이후 테일러 슈트에는 이병헌 턱시도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고, 이제 평범한 남성들도 본식에서 패턴 턱시도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었다. 생로랑에서는 매 시즌 기본 턱시도를 소량 바잉하는데, 이번 겨울에는 타탄 체크 패턴에 러플 블라우스를 매치한 턱시도 착장을 예복으로 제안했다. 흥보 담당자는 평소 생로랑을 추종하는 이들은 예복조차 같은 브랜드를 선택하는 충성도를 보이기에, 브랜드의 감성과 아이덴티티를 이해하는 고객에게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결혼의 꽃은 신부라는 명제는 여전하지만 신랑 역시 주인공임에 분명하다. 예복이 꼭 블랙 턱시도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질 뿐만 아니라 특별한 순간이 더욱 인상적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에디터 이예진**

(왼쪽부터 차례대로) 네이비 컬러에 블랙 솔칼라를 덧댄 턱시도 6백30만원, 체크무늬 셔츠 75만원, 불꽃무늬 있는 핑크 보타이 32만원, 실크 포켓 스카프 21만원 모두 톰 포드, 셔츠인 화이트로 바꾸면 본식을 위한 턱시도 룩으로 변신한다. 자카드 패턴의 솔칼라 턱시도 1백60만원, 화이트 셔츠 16만원, 블랙 보타이와 카메번드 가격 미정 모두 로드엔데일리, 타탄 체크와 솔칼라 솔칼라 라벨이 경쾌한 느낌을 주는 턱시도 재킷 3백30만원대, 단추가 달린 단추에 세로로 장식한 화이트 셔츠 81만원 모두 생로랑, 잔잔한 화이트 도트 무늬 재킷 3백59만원, 도트 패턴 베스트 67만원, 화이트 셔츠 69만원, 보타이 21만원 모두 돌체앤가바나.

톰 포드 02-6905-3840 로드엔데일리 02-515-1837 생로랑 02-6905-3924 돌체앤가바나 02-3444-0077

스타일링: 이예진, 촬영: 김민준, 스타일링: 김민준, 헤어: 김민준, 메이크업: 김민준, 모델: 김민준, 02-516-9081

당신만의 Prestige

The new Audi A8



The art of progress

The new Audi A8

기준과 신념, 그리고 원칙. The new Audi A8을 선택한 당신에게 당신만의 이유가 있다. 최대토크 86.7kgm, 최대출력 385마력의 압도적인 성능을 뽐내는 V8 4.2리터 TDI엔진. 25개로 나뉘어진 유기적인 LED로 안전한 야간 드라이빙을 선사하는 Matrix LED Headlights. 퍼스트 클래스 이상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릴렉세이션 시트와 감각적인 B&O 사운드시스템까지. 이것이 당신만의 Prestige. The new Audi A8이다. www.audi.co.kr

Audi  Vorsprung durch Technik

전시장	• 방배 02)523-1468	• 창동 02)516-2468	• 서초 02)521-0000	• 송파 02)412-3468	• 대치 02)555-1468	• 용산 02)797-1468	• 목동 02)2676-1468	• 동대문 02)2247-2460		
	• 한강대교 02)790-1468	• 도곡로 02)564-1468	• 강동 02)489-3468	• 분당서현 03)743-0000	• 안양 03)1422-0000	• 분당수내 03)712-7777	• 일산 03)905-1468	• 광교 03)263-0000		
	• 인천 03)2465-1468	• 수원 03)1241-0033	• 천안 04)567-3111	• 청주 04)265-7799	• 청주 04)3265-7799	• 부산남천 05)611-3844	• 부산해운대 05)1995-0000	• 울산 05)257-3883		
	• 대구 05)3744-7070	• 광주 06)2525-8777	• 순천 06)1746-7733	• 전주 06)3915-0000	• 창원 05)245-2233	• 진주 05)924-0000	• 포항 05)4275-0066	• 대전 04)2863-8787		
	• 원주 03)766-7786	• 춘천 03)263-4200						• 군산 06)3461-0110		
사회서비스	• 대치 02)555-4834	• 성수 02)3425-0033	• 송파 02)400-2834	• 영등포 02)2672-1468	• 서초 02)697-8255	• 용산 02)798-1468	• 분당서현 03)715-8255	• 일산 03)1905-1463	• 인천 주안 03)2429-1468	• 인천 구월 03)2465-1463
	• 수원 03)1634-0033	• 부산남천 05)628-0056	• 부산민락 05)1626-0056	• 대구 05)3350-8900	• 대전 04)2862-8802	• 천안 04)1663-5900	• 광주 06)2524-5899	• 광주 06)2524-5899	• 순천 06)1746-7733	• 진주 06)3905-5500
	• 울산 05)2277-2255	• 창원 05)5245-0999	• 원주 03)764-8787	• 제주 06)4744-0911						

■ 차종 및 표준연비
 • 차종명: 아우디 A8 50 TDI quattro (배기량: 2,967cc, 공차중량: 1,999kg, 지동8단, 복합연비: 12.6km/l (도시연비: 11.1km/l, 고속도로연비: 14.9km/l),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59g/km • 차종명: 아우디 A8 60 TDI quattro (배기량: 4,134cc, 공차중량: 2,159kg, 지동8단, 복합연비: 11.2km/l (도시연비: 9.6km/l, 고속도로연비: 13.9km/l),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80g/km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제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이미지는 주문 사양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Handy candy

심플한 룩도 금세 드레스업(dress-up)시키는 보석같이 아름다운 주얼 클러치의 위력.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도마뱀가죽과 원석 장식에서 이국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메탈 클러치. 12.5X19cm, 3백65만원 **황향**. 별 패턴과 화려한 필 장식의 포인트인 **아크릴 클러치**. 20.5X11.5cm, 1백88만원 **에디터 by 갤러리아 백 멀티**. 비즈와 메탈릭 장식을 더한 나파 가죽 소재의 비딩 풀더 클러치. 18X11cm, 2백30만원 **힐프 로렌**. 블랙 사틴 위에 갈럭시 모티브의 비즈와 반드러한 메탈 코인 비즈를 세팅한 모넬레 클러치. 24X14cm, 2백만원대 **블가리**. 브랜드 로고를 크리스탈로 화려하게 장식한 블루 컬러 클러치. 26X13cm, 1백28만원 **구피**. 반짝이는 크리스탈 세팅이 눈부시게 화려한 뉴 파워 락 실버 이브닝 백. 18.5X11cm, 98만원 **스외로브스키**. 미니멀한 디자인의 벨가죽 골드 컬러 클러치. 23.5X8.5cm, 가격 미정 **지마후**. 메탈릭한 가죽을 이어 붙여 유니크하고 구조적인 디자인을 완성한 프라즈의 클러치. 24X12cm, 2백만원대 **로저 비비에**. 에디터 권유진

황향 02-6905-3582 갤러리아 백 멀티 02-3449-4575 힐프 로렌 02-6004-0133 블가리 02-3479-6077 구피 1577-1921 스외로브스키 1661-9060 지마후 02-3443-9469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사진: yum jung hoon



ARIZONA MUSE SEE HER AT GOLDENDEW.COM

2014 NEW 'BELLA LUCE' COLLECTION

Golden dew

Your Brilliant Moment.

02 3415 5700 | GOLDEN DEW 65 STORES AT LOTTE, HYUNDAI, SHINSEGAE, GALLERIA, AK PLAZA, DEBEC, D-CUBE CITY | 02 511 1250 | CHEONGDAM FLAGSHIP STORE





부드러운 형태와 견고함을 자랑하는 카프 스킨 소재의 바백, 핸들에 달린 장식은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대변한다. 26x20cm, 6백만원대 **디올**, 문의 02-513-3232



최상급 악티가죽에 윤기가 흐르는 광택을 입힌 윌스트리트 미니 백, 선명한 오렌지 컬러가 심플한 룩을 화려하게 만든다. 24x16cm, 2천만원대 **롤렉스**, 문의 070-7113-9200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가방이자 웨딩 백 리스트로 매 시즌 상위에 오르는 소프트 리키 백, 부드러운 파스텔컬러도 인기가 높다. 27x20cm, 2백20만원대 **할프 로렌**, 문의 02-6004-0133

prestige Bags

결혼과 같은 특별한 의식에는 반지뿐만 아니라 그날을 두고두고 기억하게 해줄 뒀기가 필요하다. 여자에겐 가방이 그 역할을 한다. 세월이 지나도 가치를 더해줄 럭셔리 브랜드의 추천 웨딩 백,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빈티지한 버블과 기장자리의 장식, 체인 스트랩의 조합이 멋스러운 딜라스 컬렉션의 보이 샐비 백, 베이시한 네이비 컬러와 유령을 타지 않는다. 20x13cm, 6백만원대 **샤넬**, 문의 02-543-8700



버버리에서 이번 시즌 새롭게 제안하는 플러스버리 컬렉션의 토트백, 아치형 곡선, 볼드한 지퍼, 콤팩트한 형태가 특징이다. 30.5x19cm, 2백70만원 **버버리**, 문의 02-3485-6536



정교한 화이트 스티치와 가방 앞쪽이 자연스럽게 처진 형태가 멋스러운 송이카죽 소재의 린디 백, 25.5x17.5cm, 8백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4-7722



가방 양쪽 사이드에 브랜드 로고를 스웨이드 엠보 처리해 고급스러움이 묻어있는 쇼퍼 백, 실용적인 형태지만 우아한 컬러와 소재 덕분에 포멀한 옷차림에도 잘 어울린다. 35x24.5cm, 5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이그조틱 레더에 견고한 대나무 손잡이와 태슬, 버블 장식으로 고급스럽게 완성한 뉴 뱀부 백, 예단 백으로 추천한다. 36x22cm, 8백75만원 **구찌**, 문의 1577-1921



신뜻한 디올빛을 띠는 양가죽 소재 피카부 백, 미니 백이 인기를 얻으면서 작은 사이즈를 선호하는 추세다. 24x17.5cm, 3백72만원 **켈트**, 문의 02-2066-9022 **에디터 이예진**



OFFICIAL TIMEKEEPER



SPECIAL EDITION
Tissot PRC 200 17th Asian Games
www.tissot.kr

fabulous Edition

여심을 사로잡는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패키지의 화장품은 그 효과도 가히 빼어나다.
신부의 화장대와 피부를 아름답게 빛내줄 럭셔리 패키지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링 매트아이트 아쿠아젤라 필 파우더** 겔링의 전설적인 구슬 필 파우더에 매트, 섀비, 골드 등 세 가지 컬러 구슬을 새롭게 추가해 투명하고 생기 넘치는 매트아이트를 연출할 수 있는 필 파우더. 생기를 부여하는 핑크, 붉은기를 완화하는 매트 등 총 여섯 가지 컬러로 구성된 파우더 구슬이 한데 어우러져 피부 결정을 커버하고 피부가 마치 수분을 가득 머금은 듯한 글로 효과를 선사한다. 25g 8만원, 문의 080-343-9500

프레쉬 오일 베베나 슝 고급스럽고 화려한 포장지로 꾸며낸 향긋한 식물성 바바. 뜯기 아가를 만큼 정성스럽게 포장된 예쁜 패키지로 선물용으로도,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인기 있는 브랜드의 베스트셀러 아이템이다. 영양과 강력한 수분 공급하는 사이버터 성분 함유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가꿔주고, 상쾌한 시트러스 향이 베스 타임을 더욱 즐겁게 한다. 250g 2만2천원, 문의 080-822-9500

에스티 로더 퓨어 컬러 일루미네이팅 젤리 하이dra팅 파우더 마치 피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듯 건강하고 윤기 있는 광채를 더해줄 하이dra팅 파우더 겸 블러셔. 야하고 사랑스러운 피치톤에 화사한 진주빛 광채를 더해 복숭아빛의 여성스러운 룩을 연출할 수 있다. 6g 6만5천원, 문의 02-3440-2772

슈에다라 스파이럴 듀오 아이세도우 달콤한 캔디를 연상케 하는 사랑스러운 디자인의 아이세도우. 캔디처럼 특 특 컬러를 담은 선비로운 나선형 색도가 로맨틱하고 신뜻한 아이 메이크업을 선사한다. 브라운과 연한 브라운, 옐로우와 파스텔 옐로우 등 두 가지 컬러가 한 제품에 담겨 있으며 총 네 가지 셰이드로 출시한다. 3g 3만7천원, 문의 080-022-3332

맥 밀라피센트 아이 글라세 (집지는 숲 속의 공주) 속 악당의 아이즈를 모티브로 한 영화 (밀라피센트)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세도우 글라세. 매혹적이고 강렬한 악녀 밀라피센트의 실루엣을 그린 패키지는 한정판으로 출시되어 소장 가치가 충분하다. 컬러 역시 스모키 아이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브라운 계열로 구성해 활용도가 높다. 5.6g 6만원, 문의 02-3440-2645

디올 스킨 누드 슈머 건강한 핑크색이 가득한 피부를 원한다면 누드 컬러의 이 시어 파우더를 얼굴 윤곽과 두 뺨에 가볍게 터치할 것. 빛을 반사하는 은은한 핑크 피부에 화사함을 부여하고 페이스 라인을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게 만들어준다. 디올을 상징하는 카나주 패턴의 섀비 패키지와 감각적인 디자인의 재킷이 어우러져 시로 감는다. 10g 7만5천원, 문의 02-3438-9537

크리크 치크 팝 포플러가 아주 가볍고 실리한 파우더 블러셔. 액체 블러셔를 오븐에 천천히 구워 만든 특별한 재형으로, 피부에 쉽게 발리고 과한 느낌 없이 자연스럽고 생기 있는 치크 메이크업을 완성한다. 싱그러운 플라워 패키지와 여성스럽고 화사한 네 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3g 3만원, 문의 02-3440-2773

베네트 롱카워터 무대 위 화려한 룩 스타처럼 색사하고 화려한 치크 메이크업을 완성해줄 블러셔. 프리즈와 파우더 테크놀로지를 적용한 로즈 골드빛 블러셔로 은은하게 반짝이는 컬러가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된다. 미세한 필이 함유되어 살짝만 발라도 피부가 매끄럽고 탱탱해 보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5g 4만2천원, 문의 080-001-2363

시세이도 마카아쥬 에센스 글래머러스 루즈 NEO 촉촉하고 볼륨 있는 립 메이크업을 연출하고 싶다면 이 립글로스에 주목할 것. 입술이 쉽게 건조해지면서 광택과 볼륨이 없지는 기존 립글로스의 단점을 보완한 신제품이다. 탄성 기억 마스 쥬 오일, 광택 유지 메스킹 오일, 탄성 피스 오일로 구성된 3중 분리 테크놀로지를 적용해 입술에 수분을 꼭 채워주고 컬러와 수분이 날라가지 않도록 도와준다. 6g 3만6천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권유진

THE FRONT TELLS THE TIME



THE BACK TELLS THE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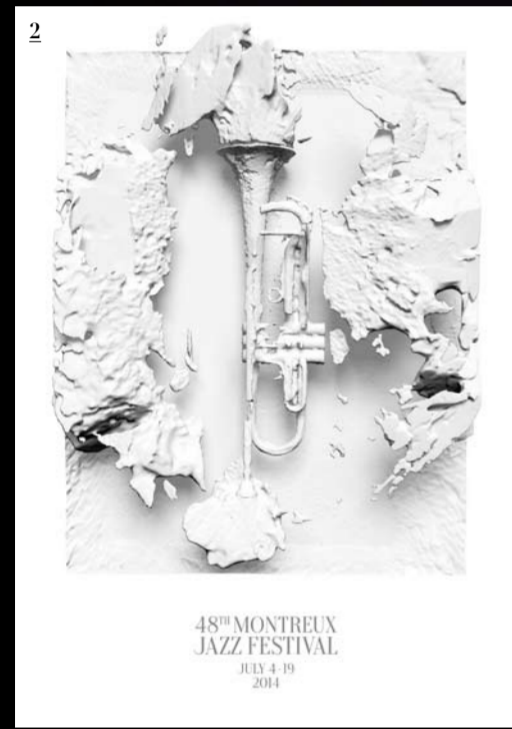
POP UP STORE
가로수길 플래그십 8/22, SEOUL 02-3446-9401

swatch SYSTEM 51



시간 위에 흐르는 재즈 선율

스위스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음악 축제,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세계 회사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가 후원사로 나서면서 더욱 풍부해진 축제가 한여름 밤을 영원한 추억으로 기억하게 한다.



여름은 언제 어디든가 아외로 나가야 할 것만 같은 계절이다. 그런 여행에는 음악이 빠질 수 없다. 자연과 벗한 곳에서 눈과 귀까지 즐거우니 그야말로 무릉도원이 따로 없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대관령국제음악제, 1880년대부터 리하르트 바그너가 구상해 지금까지 이어지는 독일의 바이로이트 바그너 페스티벌, 1920년부터 오페라, 연극, 콘서트의 중요한 축제로 자리매김한 오스트리아의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1947년부터 영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열리는 에든버러 페스티벌 등 오랜 역사만큼 명망 높은 세계인의 축제 대부분이 7월과 8월에 개최된다. 재즈 음악계에서 이름난 페스티벌을 살펴보면 1948년 시작된 프랑스 니스 재즈 페스티벌, 1954년부터 시작된 미국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 1980년에 시작한 캐나다 몬트리얼 재즈 페스티벌이 있다. 그리고 1967년부터 시작된 스위스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을 빼놓을 수 없다.

만년설이 있는 알프스가 바라다보이는 레만 호수와 맞닿은 아름다운 휴양 도시 몽트뢰에서 열리는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은 1967년 재즈 애호가로 당시 관광청에서 일했던 클로드 놀(Claude Nobs)이 시작했다. 원래 순수한 재즈 음악 위주로 미안스 데이비스, 듀크 엘링턴, 레이 찰스, 엘라 피츠제럴드 등 당대의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을 만날 수 있었던 축제는 1970년대 이후 여러 클럽만, 데이비드 보위, 스티브 니콜스, 프란시스 베이컨, 린 등 팝, 록, 솔, 펑크, 레게, 일렉트로닉

까지 그야말로 폭넓은 음악을 수용하는 페스티벌로 발전했다. 지난 7월 4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열린 제48회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을 살펴 보면 그래미 어워드를 수상한 블루스 싱어 바다 가이, 스위스 대표 가수 슈테판 아이셔(Stephan Eicher), 아일랜드 가수 밴 모리슨, 미국 힙합 듀오 아웃캐스트(Outcast), 프록슈어이기도 한 미국 패럴 워런스(Parrel Williams), 영국 트립합 듀오 매시브 어택(Massive Attack), 그리고 미국 펑크 가수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까지 매우 다채로운 라인업이었다. 음악 애호가라면 꼭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 축제를 2007년부터 지지해온 후원사가 있으니 바로 파르미지아니 플러리에다. 음악 축제는 단순히 보고 듣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를 후원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 공헌의 의미도 포함된다.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도 몽트뢰 재즈 아티스트 재단을 별도로 두고 재능 있는 젊은 음악도를 위한 지원과 홍보를 아끼지 않는데, 그중 세 가지 행사를 특별히 파르미지아니가 후원하고 있다.

파르미지아니 몽트뢰 재즈 솔로 피아노 경연대회(Parmigiani Motreux Jazz Solo Piano Competition)는 1999년부터 시작된 솔로 피아노 콩쿠르로 올해는 7월 14일 저명한 재즈 피아니스트 몬티 알렉산더(Monty Alexander)의 심사로 치러졌다. 올해 수상자인 독일의 로렌츠 켈후버(Lorenz Kellhuber)는 최고의 시설을 갖춘 스튜디오에서 앨범을 녹음할 수 있고, 내년 페스티벌에서 공연 기회를 얻게 된다. 또 파르미지아니가 제작한 2014년 스페셜 에디션 시계를 제공한다. 그 외에 재능 있는 신예를 선발, 가을에 3주간 유명한 뮤지션에게 집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몽트뢰 재즈 아카데미(Montreux Jazz Academy), 그리고 아카데미에서 가장 혁신적이라 평가받은 예술가에게 뉴욕 블루 노트 클럽 등 음악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돌려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워드 투 어(Rising Talents on Tour)를 후원한다. 우리나라의 통영국제음악제나 대관령국제음악제에서도 신예 발굴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축제를 더욱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또 하나의 볼거리는 몽트뢰 재즈 카페다. 퀸시 존스와 클로드 놀의 우정을 바탕으로 제34회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에 처음 문을 연 몽트뢰 재즈 카페는 작은 콘서트, 전시, 점 세션 등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에 대한 추억과 친분을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 잡았다. 비단 몽트뢰뿐만 아니라 2008년 6월 제네바 공연, 2011년 12월 취리히, 그리고 런던 해러즈, 2013년 파리 리옹, 2015년에는 로잔 기술학교(Ecole Polytechnique Fédérale de Lausanne)에서 만날 수 있다. 내년 제49회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은 2015년 7월 3일부터 18일까지 열린다. www.montreuxjazzfestival.com 글 **정희경** 칼럼니스트, (사계 이야기) 자자



1.5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중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가 연주하는 오디트리움 스타라벤스카에서의 연주. 2. 제48회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의 포스터는 앙원 우드키드(Woodkid)라 알려진 르망 얀(Yoann Lemoine)이 작업했다. 3, 4 Tonda Mambo 관능적인 라틴 음악을 대표하는 람보 멜로디를 연주하는 쿠바 음악가의 모습을 그대로 담은 시계. 나무 조각을 실러 모자이크로 끼워 넣는 마케트레 기법으로 제작했는데 일장모자지는 그물 모양의 코토 마유(Koto Maille), 음악가의 얼굴과 손은 성서적이고 관능적이 나는 배너. 서초는 천연 주름이 돋보이는 호두 나무를 사용해 만든 유니크 피스다. 6 파르미지아니의 초창기를 위한 VIP 라운지. 7, 8 Tonda Metro MJF 2014 Special Edition 2014년 파르미지아니가 처음으로 소개한 톤다 메트로 컬렉션이 올해의 시계로 선정됐다. 48회 몽트뢰 재즈 페스티벌 포스터에 등장한 몬트뢰의 인체 예술적인 트윈 이미지를 레기 화이트와 포스터 질감을 절묘하게 표현하는 인체 기술로 그대로 다이얼에 담았다. 시계는 PF315 오토매틱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탑재한 지름 40mm의 남성용 톤다 메트로그래프 MJF와 PF310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탑재한 지름 33.10mm의 여성용 톤다 메트로클라틴의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캐논 여름이벤트 휴가비가 돌아왔다

2014 7.9-8.31
100% 사은품 지급과 100분께 100만원의 휴가비를!

2014. 7.9_ 8.31 캐논 행사제품을 구매 후 정품등록을 하시면 100%사은품 지급은 물론, 휴가비를 돌려받는 행운까지!

- 01 event · 아웃도어 백팩 or 포스트백 or 정품 배터리 or 정품 프로텍터 필터 중 택1
▶ EOS 70D / 700D / 100D / 파워샷 G1X Mark II 및 행사 대상제품 / EF렌즈 행사 대상제품
- 02 event · 휴가사진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00만원의 휴가비를 돌려드립니다
▶ 해당 캐논 제품을 구입하고 정품 등록을 한 대상자에 한함

※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www.canon-ci.co.kr)를 참조하세요



Canon
www.canon-ci.co.kr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Beyond the Forest
BIRCH HILL
TERRACE RESIDENCE

사람에게 가장 좋은 해발 700미터 용평리조트
계절의 색채를 그대로 누릴 수 있는 Wide Terrace
가족의 행복이 더욱 커지는 Family Room
지인들과의 여행에도 불편함 없는 Two Master Room
두 개의 골프장을 오롯이 담아내는 남향설계
이 모든 가치, 버치힐 테라스 레지던스에서 경험하십시오

극히 소수의 선택되신 분들을 모십니다
회원모집문의 02.3272.2940

대관령과 서울의 기온차이
[연간평균 5°C]
※출처: <http://www.kma.go.kr>



· 상기 이미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용평리조트
ALL SEASONS RESORT



eternal Promise

꽃과 나무의 푸른 잎이 물들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때, 그 찬란한 축복 속에서 사랑의 서약이 울려 퍼진다. *photographed by park gun-zoo*

Propose Solitaire Rings

(왼쪽 아래 나무 바닥 위에서부터 아래로) 소용돌이치는 우아한 곡선의 까르띠에 트리니티 링을 재해석한 트리니티 루빈 솔리테어 링 0.59캐럿 기준 2천4백만원대, 1895년 루이 까르띠에가 디자인한 것으로, 균형미와 우아함을 선사하는 솔리테어 1895 피에 링과 솔리테어 1895 링 0.73캐럿 기준 1천9백만원대, 0.7캐럿 기준 1천5백만원대 모두 **까르띠에**.

헤럴드 스톤 인쪽 유틸리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름답게 흔들리는 피어 첫 다이아몬드와 섬세한 라본 매듭의 부풀드 다이아몬드 7캐럿인데, **몽블랑**의 우아함을 담은 까르띠에 솔리테어 링 0.59캐럿 기준 1천7백만원대 모두 **시벨 호인 주얼리**. 결혼반지의 시초가 된 티파니의 대표적인 워터 링인 티파니 서클 링 17캐럿 기준 2천만원대부터, 세이브 서클 밴드 링 1천2백만원대, 2줄의 비드 서클 다이아몬드가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감싼 우아한 디자인의 솔리스트 링 17캐럿 기준 3천만원대부터, 솔리스트 밴드 링 3캐70만원대, 일쪽으로 모아지는 밴드 디자인이 사랑하는 두 남녀의 화음을 표현한 하모니 링 17캐럿 기준 2천만원대부터, 브릴리언트 쿠션 컷 링을 중심으로 영롱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각각 8캐럿 비드 사탕에 화려함을 부각한 노보 워터 링 17캐럿 기준 3천만원대부터 모두 **티파니**. 한 송이 꽃을 연상케 하는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이를 에워싼 서브 다이아몬드의 조화기 로렌틴 배치가 주제가 솔리테어 링 0.5캐럿 기준 9백만원대, 가장 로맨틱한 삼중 해인 왕관에서 영감을 받아 심플하면서도 절제된 밴드 디자인의 코루나 솔리테어 링 17캐럿 기준 3천만원대, 영원을 상징하는 밀 아식에서 영감을 받은 밴드 디자인이 돋보이는 소피카 솔리테어 링 17캐럿 기준 3천만원대 모두 **블가린**.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작은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비움드 솔리테어 링 1천3백만원대, 친으로 나뉘는 아교아 진주 사이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인 블 블 링 1천4백만원대 모두 **타사키**. 매듭을 감추고 스톤으로 수놓는 마이크로 피에 세팅 기법으로 세련 스톤을 더욱 돋보이게 연출한 티스르네 솔리테어 링 1캐럿 마장 까르띠에.



※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동일한 카라트인지라도 다이아몬드의 투광도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몽블랑 스톤인쪽 루 부캐 정미용(02-3446-4127)



Classic, Men's Watches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칸스텔레이션 18K 옐로 골드와 블랙과 다크 그레이 컬러의 다이얼이 눈에 띄는 오메가의 베스트셀러 워터 남성 워치, 고급스럽고 클래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1천만원대, **파르미지아니 톤다 1950** 6시 기준 클래식한 디자인의 톤다 1950 모델의 베젤에 84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올드라 신 워치, 7.8mm의 얇은 두께와 직경 33mm의 슬림한 케이스 디자인이 멋스럽다. 2천7백만원대, **블랑팡 빌레레 8 데이즈 컴플리트 캠퍼드** 오묘한 표정의 달을 새긴 문패이즈가 시그니처인 빌레레 캠퍼스 워치, 컴플리트 캠퍼드, 언더 리그 코어테 기능을 갖추어 특정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4천6백만원대, **워블로 클래식 퓨전 크로노그래프 링 골드** 기준 클래식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시계로, 남성미가 느껴지는 무량 블랙 다이얼이 인상적이다. 4천만원대,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헤리티지 스틸 문패이즈** 헤리티지 캠퍼스의 문패이즈 버전 스틸 워치, 몽블랑 마이스터스틱 만년필의 출시 90주년을 기념하여 탄생한 캠퍼스 워치, 6시 방향에 문패이즈를 배치한 캠퍼스 다이얼 디자인과 악어 가죽 밴드가 클래식하다. 5백60만원대, **에르메스 아스그랑드 룬** 남성 워치 악어 가죽 스트랩을 매치한 남성 워치, 6시 방향에 달과 날짜를 표기하는 문패이즈가, 다이얼 안쪽에는 말안장의 헤링본에서 영감을 받은 패턴이 새겨져 있다. 9백만원대.



Forever Couple Rings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타사키 피아노 커플링 18K 시쿠라 골드를 마치 피아노 건반처럼 디자인한 커플링. 다이아몬드 풀 파베 링 4백만원대, 밴드 링 1백70만원대, 사넬 마릴라베 커플링 사넬 핸드백의 상징인 칼링 패턴 모티브 커플링. 각 2백만원대, 타사키 스틸레 커플링 마치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는 듯한 이미지의 커플링. 다이아몬드 파베 링 2백만원대, 밴드 링 1백60만원대, 불가리 불가리 커플링 불가리의 스타디셀러 이어jem, 더블 로고를 인그레이빙하고 다이아몬드를 장식했다. 각 2백만원대, 사넬 프리미에르 커플링 사넬을 대표하는 왕수, 남버 5의 보물 디자인이자 파리 방돔 광장의 팔각형 형태를 모티브로 한 프리미에르 커플링. 각 4백만원대, 까르띠에 러브 커플링 까르띠에의 시그니처 칼렉션인 러브 칼렉션의 상징인 스크루 드라이버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솔리테어 링 0.23캐럿 기준 5백10만원대, 다이아몬드 밴드 링 2백60만원대, 티파니 아틀라스 피어스드 커플링 로마숫자가 상징적인 티파니 아틀라스 라인의 로즈 골드 커플링. 중앙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각 1백만원대, 부쉐론 파셋 플레타늘 커플링 독자적인 커팅 기법으로 유니크한 세이프를 완성한 커플링. 3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링 3백만원대, 밴드 링 2백만원대, 불가리 스파가 커플링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밀 아삭에서 영감을 받은 커플링. 개성 있는 패턴의 밴드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각 2백만원대, 부쉐론 퀴트르 블랙 커플링 블랙 컬러의 두 줄 퀴트르 밴드 커플링. 다이아몬드 파베 세팅 6백만원대, 밴드 링 2백만원대, 사넬 울트라 미니 커플링 모던한 디자인의 세라믹 커플링. 화이트 세라믹 2백만원대, 블랙 세라믹 솔리테어 링 5백만원대, 티파니 밀그레인 칼렉션 커플링 플래타늄에 옐로 골드를 매치한 스타디셀러 커플링. 각 1백만원대, 타사키 인피니타 커플링 곡선 라인이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각 1백만원대, 티파니 TCO 밴드 커플링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시그니처 로즈 골드 커플링. 각 1백50만원대, 까르띠에 트리니티 커플링 옐로 골드,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등 세 가지 컬러의 하모니로 이루어진 트리니티 칼렉션의 커플링. 솔리테어 링 0.23캐럿 기준 5백만원대, 밴드 링 2백만원대.



Bridal's Brilliant. Necklace

(왼쪽부터 차례대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의미가 담긴 키 칼렉션으로,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특별한 칼레이도스코프 키 네크리스 3천만원대(세팅인 밴드) 티파니, 18K 화이트 골드 비에 6.5mm 이크아 진주와 0.5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함을 강조한 '블린스 솔로 네크리스 1천3백만원대' 타사키, 하늘에서 떨어지는 반짝이는 유성을 모티브로 한 코메트 네크리스 1천만원대 사넬 화인 주얼리, 투명한 울빙을 세이프의 0.25캐럿 아바 페어 펜던트 네크리스 1천1백만원대 부쉐론, 단아한 디자인과 까르띠에 로고인 C 모양의 세팅으로 유명한 시그니처 칼렉션 C 드 까르띠에 네크리스 1천3백만원대 까르띠에.
 *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동일한 캐럿인자라도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omantic Wedding Jewelry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플라워 모티브의 꽃잎에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한 빅토리아 컬렉션 그레듀에이트 네크리스 9천8백만원대 **티파니**, 장미 꽃병오리를 밑그림인 기법으로 표현한 브루츠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2천만원대, 거대한 중후와 그안에 비친 카리얌이라는 악기를 모티브로 한, 섬세한 세공이 돋보이는 콜로세 링 1캐럿 기준 2천만원대, 한 송이 정미를 형상화하기 위해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미 꽃잎을 표현한 브랑슈 솔리테어 링 1캐럿 기준 2천만원대 모두 **루시에**, 48개의 다이아몬드를 원형 모티브의 계단형 디자인으로 세팅해 센터 스톤을 더욱 크고 화려하게 연출한 나무로 컬렉션 네크리스 17캐럿 기준 7천5백만원대 **까르띠에**, 0.3캐럿의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아슬하게 피어오른 동백꽃을 형상화한 핏 드 가엘리아 펜던트 1천7백만원대, 모던하고 볼드한 디자인의 블랙 세라믹 & 다이아몬드 솔리테어 링 3백만원대, 양중맞고 사랑스러운 리본 모티브의 루빈 링 8백만원대, 화려하게 만발한 동백꽃 두 송이를 섬세하게 세팅한 가엘리아 이어링 1천3백만원대 모두 **샤넬 화인 주얼리**, 목선을 타고 흐르는 드림형의 원형 모티브가 우아한 싸클렛 컬렉션 더블 드롭 네크리스 4천9백만원대 **티파니**, 중앙을 세이프의 0.5캐럿 이파 페어 링 1천8백만원대, 화이트 골드에 2캐럿 옐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고저스 링 가격 미정, 두 줄의 쿼트로 밴드에 0.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쿼트로 클래식 워킹 밴드 9백만원 모두 **부쉐른**, 18K 옐로 골드 바 위에 남양진주를 세팅해 모던하면서도 볼드한 느낌의 밸런스 루스 브라이슬릿 8백30만원대, 12mm의 최상급 남양진주와 0.5캐럿 다이아몬드 18K 화이트 골드 오픈워크 링 6백만원대, 파리 방돔 광장 기둥의 나선형 무늬에서 영감을 받은 0.7캐럿 토르사드 솔리테어 링 2천만원대, 1캐럿의 센터 페어 컷 다이아몬드와 41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타이아르 모양으로 세팅한 조세핀 타이아르 플라티넘 링 4천만원대 모두 **소메**.

※ 다이아몬드 주얼리는 동일한 캐럿이라도 다이아몬드의 투명도와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legant Women's Watches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케이프코트** 남동쪽 심비 여성워치 기준 케이프 코트 라인업을 보다 유려하고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변형시킨 디자인으로, 스톤 케이스를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1천5백만원대. **오메가 컨스텔레이션** 플루비아 라인어로 '깃털'이라는 의미를 지닌 여성워치. 내부줄 화이트, 골드, 삼패인, 블루 컬러로 선보이는 섬세한 디자인의 마더 오브펄 다이얼이 이 컬렉션의 특징이다. 9백만원대. **크리제 클래식 8788 문패이즈** 에-나일 다이얼에 새긴 클래식한 아라비안숫자 인덱스와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문패이즈가 매력적인 여성워치. 12시 방향에 문패이즈가, 3시 방향에 파워 리저브인디케이터가 장착되어 있다. 셀프와인딩 무브먼트 591 DRL을 탑재해 총 0.72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되어 있다. 3천6백만원대. **올리스 나르덴** 튜인라인 웨이디 미니-원형 케이스 디자인,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매력적인 듀얼타임 워치. 베젤과 인덱스에 2개의 다이아몬드를, 6시 방향의 스톤 세컨드에는 12개의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했다. 2개의 플러스(+), 마이너스(-) 푸셔를 사용해 쉽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9백80만원. **제니스 스타 문패이즈** 중성적이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39.9mm 옐로트 신 워치. 어제의 스포츠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쿼츠 모양의 케이스로 특별함을 더했다. 블루 로빈제르 표기형 인덱스의 케이스 모서리 곡선을 따라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우아하다. 2천8백만원대. **샤넬 화인 주얼리 J12 크로매틱 29mm** 기준 J12의 하이테크 세라믹 대신 새로운 소재인 티타늄 세라믹으로 제작해 보다 가벼운 착용감과 높은 내구성이 특징이다. 8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와 29mm 사이즈의 케이스로 여성미가 돋보인다. 9백만원대. **까르띠에 파퓰 워치** 1912년에 탄생한 까르띠에의 대표 워치를 재해석해 보다 젊고 근사하게 미려함을 엿볼 수 있는 여성워치. 1천3백만원대. **에디터 베이징, 권유진**

까르띠에 1666-7277 티파니 02-547-9488 샤넬 화인 주얼리 02-3442-0962 타사기 02-3461-5558 불가리 02-2056-0172 루시에 02-512-6914 소메 02-3467-8872 부쉐른 02-596-8529 크리제 02-3149-9551 에르메스 02-3448-0728 블랑팡 02-6905-3367 몽블랑 02-3440-5734 제니스 02-3467-8733 위블랑 02-540-1356 올리스 나르덴 02-2-92-9627 오메가 02-511-5797 파르미지아니 02-3479-1986

the perfect Set

결혼식을 앞둔 여자들이 과감하게 지갑을 여는 품목 중 하나인 화장품. 뷰티 브랜드를 대표하는 웨딩 세트라면 주는 사람은 물론 나를 위한 투자로 충분한 가치가 있을 듯.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입생로망 다크 스킨, 광채, 피뎀, 탄력을 동시에 책임지는 멀티플라이어. 4-in-1 멀티 광채 젤 크림(50ml 15만원대), 4-in-1 멀티 광채 세럼(30ml 15만원대), 포어바리트 크리에이티브 토너(200ml 7만6천원), 문의 080-565-5678



설화수 스킨케어의 사조와 끝을 책임져 맑은 윤기와 촉촉함을 불러준다. 미인피니셔(80ml 9만원대), 파퓰러 쿠션(15gX2 6만원대), 윤조에센스(60ml 8만5천원), 문의 080-023-5454



갤랑 고농축 오이드를 함유한, 브랜드의 상징으로 꼽히는 얼굴들. 골드 오이드 임페리얼 크림(50ml 54만원대), 오이드 임페리얼 화이트 세럼(30ml 59만5천원), 골드 오이드 임페리얼 아이 앤 립 크림(15ml 26만원대), 문의 080-343-9500



디올 피부 속 보이지 않는 독소를 정화해 본연의 광채를 일깨워주며, 고르지 않은 피부를 정돈한다. 캡춰 토탈 아이크림(15ml 12만5천원), 원 에센셜 50ml 17만5천원, 캡춰 토탈 드림 스킨(30ml 14만원), 문의 080-342-9500



나스 노란 인색을 밝혀 피부 톤을 화사하게 연출한다. 아쿠아 젤 루미나스 오일프리 모이스처라이저(50ml 8만9천원), 토탈 리플레시브 아이크림(15ml 8만5천원), 멀티셀 브라이트닝 컨센트레이트(30ml 11만4천원), 더블 리피딩 인스폴리메이트(75ml 5만4천원), 문의 02-6905-3747



SK-II 집중적인 화이팅 케어로 환한 안색 만들기. 페이스 트리트먼트 클리어 로션(150ml 7만원대), 셀루미네이션 오라 에센스(30ml 17만원), 셀루미네이션 딥 서지 EX(50g 15만원대), 화이팅 스파트 스킨리스트 컨센트레이트(28pcs 17만원대), 문의 080-023-3333



에스티 로더 탄력과 주름을 책임지는 토탈 인티에이지.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리프트 에이지-코렉팅 크림(50ml 39만원),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리프트 에이지-코렉팅 아이크림(15ml 20만원대), 리-뉴트리브 얼티미트 리프트 에이지-코렉팅 세럼(30ml 39만원대), 문의 02-3440-2772



랑콤 예단 화장품으로 제격인 초고기능 인티에이지 라인. 압슬루 엑스트레(50ml 52만원대), 압슬루 엑스트레 아이(15ml+아이 패치 6개 36만원), 아드밴스드 제너피크(30ml 11만원대), 문의 080-022-3332



클라린스 식물 성분으로 잔주름과 안티에이지를 동시에 해결한다. 더블 세럼(30ml 12만원), 토탈 V 에센스(50ml 9만4천원), 엑스트라-피딩 데이 크림(50ml 11만원), 엑스트라-피딩 나이트 크림(50ml 11만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이예진**



섬세한 레이스로 신비로우며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극대화한 롱스lee 웨딩드레스. 커튼처럼 연출한 안셀란스한 스카르트가 드라마틱한 신부의 분위기를 강조한다. 구두 Jimmy Choo, 드레스 Atelier Pronovias.



Lacy Fantasy

은은하고 화사한 레이스의 유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다. 사랑스러움과 팜파탈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2014 F/W 웨딩드레스 컬렉션.
photographed by toni thorbent



신부의 사랑스러움이 더욱 돋보이는 드레스. 마치 꽃 덩굴 같은 어깨끈과 허리 라인, 그리고 스커트 위의 꽃 패턴 등이 아름다운 정원을 연상케 한다. 드레스 Peter Langner.



정교한 레이스로 매력적인 실루엣을 강조한 드레스. 페플럼과 마에이트 라인으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등을 과감하게 노출해 섹시한 신부의 느낌도 놓치지 않았다. 드레스 Atelier Aimé Montapoleone.



귀엽고 사랑스러운 신부의 모습을 강조한 드레스. 실링이는 마치 물을 불레르처럼 겹쳐 얹어 경쾌한 느낌을 강조했다. 단순한 디자인이지만 소재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강조한 매력적인 드레스. 드레스 **Le Spose di Giò.**

시폰으로 레이스 드레스를 감싸 한 층이 꽃처럼 보이게 연출한 드레스. 레이스와 시폰의 은은한 매력이 여성스러움을 더욱 강조한다. 핑크색 새틴 리본 장식으로 로맨틱하게 마무리한 것이 포인트. 드레스 **Acquachiera Collection Milano.**





시크릿 기둥을 웨딩드레스에 옮겨놓은 듯
매혹적인 새틴 웨딩드레스. 울타리를 떠올리게
하는 정교한 뷔스티에와 꽃 장식이 이티스틱한
분위기를 더해 준다. 스커트는 소재의
고급스러움만 강조해 심플하게 매치했다.
드레스 Carlo Pignatelli Couture.

수줍은 신부의 매력이 그대로 표현된
레이스&사틴 드레스. 레이스와
사틴 사이로 언뜻언뜻 비치는 시스루
드레스가 신부를 더욱 사랑스러워
보이게 한다. 구두 Jimmy Choo.
드레스 MatthanGori Milano.



헤어 & 메이크업 Roman Gasser, Giovanni Iovine(MAC Cosmetic, L'Oreal Professionnel)
세트 스타일리스트 Marco Ronchi(www.marcoronchi.it)
어시스턴트 Stella Romoli
스타일리스트 Silvia Meneguzzo

Explore ocean

〈스타일 조선일보〉는 이달부터 흥미진진한 시계 스토리를 전하기 위해 오메가의 이야기를 꺼내 들었다. 시계 기술의 진보에서 가장 큰 충격을 담당하고 있는 오메가의 스토리는 시계의 역사 그 자체다. 12월까지 매달 2페이지씩 연재되는 '시계의 역사, 오메가의 역사' 칼럼을 통해 스위스 위atch메이킹의 지난날을 기록하고 기계식 시계의 가치를 환상해보자. 첫 번째 스토리는 오메가의 핵심 라인인 씨마스터 컬렉션에 대한 이야기다.



오메가, 세계 최초의 마린 워치

지금만큼 기계식 시계가 호황을 누리고 럭셔리 마켓의 화두가 된 적이 있던가?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계를 모두의 필수품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의 청교도 정신은 아이러니하게도 21세기 럭셔리 산업의 상징으로 확장되었다. 이 때문에 지금 기계식 시계는 사치품이라는 오해 아닌 오해도 받고 있지만, 오메가는 단단한 히스토리로 이러한 의구심을 지워주는 성실한 브랜드다. 오메가는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인이 착용한 시계인 스피드마스터, 세계적인 경매에서 항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컨스텔레이션, 클래식 워치의 대명사인 드빌, 엄격한 기준의 다이버 워치 컬렉션인 씨마스터로 대변된다. 그중 이번 호에서 다룰 씨마스터 컬렉션의 역사는 말 그대로 방수 워치, 마린 시계 역사의 중심에 있다. 지금 모든 워치 브랜드가 다이버 워치를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다이버 워치의 명가를 찾는다면 오메가를 최우선으로 꼽는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 기업인 스위치 그룹의 일원으로 이미 브랜드 초기부터 막대한 투자금을 감수하고 꾸준히 기술을 쌓아왔다. 오메가를 대표하는 마린 워치 시리즈인 씨마스터는 이렇듯 아주 견고하고 깊은 오메가의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얻었다.

1932년 오메가 최초의, 그리고 세계 최초의 다이버 워치인 마린(Marine)은 지금 다시 보아도 혁명 그 자체다. 완전히 분리되는 2개

의 케이스는 외부 케이스와 안쪽의 다이얼 케이스가 꼭 맞도록 설계되었다. 또 바깥쪽 케이스에는 스크래치를 방지하는 인공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했는데, 기존 글라스보다 강도가 10배 이상 강했다. 물이 닿아도 녹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와 골드 소재 두 가지 버전으로 제작된 이 시계의 스트랩은 실용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오메가의 정신에 따라 물개가죽(seal skin)으로 제작했다. 당연히 바닷물에도 끄떡없는 소재다. 잠수용 슈트 위에도 착용 가능하도록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 접이식 잠금장치까지, 목적이 딱 맞는 시계를 제작하는 오메가의 정신은 이 초기 모델에도 그대로 담겨 있다. 어떤 시계든 완벽한 테스트를 거치는 오메가의 고집은 이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1936년 마린 모델 3개를 다양한 실험군으로 테스트했는데, 이 테스트에서 85°C로 가열한 물에 4분 동안, 5°C의 제네바 호수 73m 수심에서 30분 동안 제품을 담가두었고, 그 결과 성능적이었다. 다이빙을 위한 최초의 산소 탱크를 개발한 다이빙의 개척자 이브 르 프리외(Yves Le Prieur)가 오메가의 마린 모델을 착용했고, 1936년 해저 연구가 윌리엄 비브(William Beebe) 또한 태평양 해저 14m 수심에서 이 시계를 착용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칼리버 19.4 SOB T2를 탑재한 마린은 세계에서 가장 방수가 잘되는 손목시계였고, 까르띠에와 티파나에서 재판매되기도 했다(당시에는 시계 전문 브랜드의 모델을 구입해 외판만 수정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1948년 드디어 완벽한



다이버 워치인 씨마스터 컬렉션이 드디어 얼굴을 드러냈다. 안정적인 방수 기능을 갖춘 씨마스터 컬렉션이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경쟁사에서 오메가가 견줄 만큼 퀄리티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씨마스터 워치 디자인은 다이버 워치라기보다는 방수 기능을 갖춘 클래식한 워치처럼 보인다. 하지만 오메가는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탑재할 원했고, 1957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씨마스터 300을 출시해 다이버 워치의 새 시대를 열었다. 깊은 수심에서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야광 다이얼과 잠수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회전 베젤을 적용한 후 오메가의 명성은 높아졌다. 긴 연구 끝에 탄생한 씨마스터 300은 항구 설비 보수나 수심 파이프 부설 등의 험한 작업을 위한 필수품이 되었다.

강력한 성능의 전문 다이버 워치, 씨마스터 프로페셔널 600

오메가는 1968년 이후부터 유명한 잠수업체 콤엑스(Comex)와 함께 작업해왔다. 같은 해 콤엑스의 다이버 랍프 브라우어와 르제 베이른스가 수심 365m로 설정된 가상의 잠수 상황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는데, 역시 씨마스터 300이 함께했다. 1969년 오메가는 60m 방수 기능의 씨마스터 60과 200m 방수 기능의 씨마스터 200을 선보였다. 여기서부터 오메가의 다이버 워치 기술은 탄력을 얻기 시작했다. 1970년, 4년간의 연구 개발 끝에 획기적인 '씨마스터 프로페셔널 600'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다이버 시계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 것이다. 전문 다이버를 지칭하는 플로프로프(PluProf, Plongeur Professionnel - Diver Professional)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보는 것만으로도 박력이 넘치는 이 워치는 견고한 구조 덕에 높은 수압에도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 특징이다. 하나의 메탈로 제작해 완벽한 밀폐를 보장하는 모노코크 케이스, 붉은색 베젤 잠금장치, 압축 나사로 봉인된 왼쪽의 시각 크라운 등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었다. 당시 오메가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600m 방수와 함께 수중에서 가장 큰 위험 요소인 헬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압력이 낮아질 때 시계 안에 차 있던 헬륨이 팽창하면 시계가 터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오메가는 단지 헬륨을 배출하는 밸브 실험에 만족하지 않고 플로프로프를 매우 단단하게 봉인해 헬륨조차 침투할 수 없는 시계를 만드는 연구에 착수했다. 시계업계에서 유일하게 질량 분석계를 소유한 오메가만이 할 수 있는 시도였다. 결국 오메가는 일명 '고릴라 테스트(gorilla test)'를 통해 이 워치가 수심 1,370m에 상응하는 1백37기압까지 견딜 수

로페셔널 1000을 소개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5mm 두께의 미네랄 글라스 역시 엄청난 압력에도 끄떡없었다. 1972년 출시된 다이버용 크로노그래프 씨마스터 오토매틱 120m 역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모델은 최초의 논스�크루(nonscrew) 방식임에도 수심 120m까지 케이스에 물이 침투할 염려 없이 수중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제임스 본드의 완벽한 파트너, 오메가 씨마스터

이후 씨마스터 프로페셔널 다이버는 다이버가 아닌, 영화 캐릭터 때문에 더욱 유명해졌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스파이, 제임스 본드다. 손 코넬리, 로저 무어, 티모시 돌턴 등 지난날의 제임스 본드는 롤렉스를 착용했지만, 1995년, 새로운 제임스 본드인 피어스 브로스넌은 세련되고 우아한 그의 이미지에 꼭 들어맞는 시계를 찾았고, 그 결과 오메가가 선택되었다. 〈007 골든 아이〉(1995)에서 새로운 본드의 면모를 보여준 피어스 브로스넌은 푸른색 다이얼의 씨마스터 프로페셔널 다이버를 착용했다. 〈언리미티드〉(1999), 〈아더 테이〉(2002)에 이어 대니얼 크레이그가 더 강해진 새로운 본드로 열연한 〈카지노 로얄〉(2006)에서도 씨마스터는 계속 007 요원의 시계로 등장한다. 2007 시리즈의 광고는 씨마스터 프로페셔널 다이버에 제임스 본드 시계라는 별명을 담아주었을 뿐 아니라, 엄청난 매출을 가져다주었다. 1996년 한 해 동안 씨마스터 프로페셔널 다이버가 올린 매출은 전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다. 크레이그의 두 번째 영화 〈퀀텀 오브 솔러스〉(2008)와 〈스키이폴〉(2012)에서도 오메가는 여전히 제임스 본드의 손목에서 빛났다. 앞으로도 에스틴 마틴과 짓지 않고 흔들기만 한 마틴이, 그리고 오메가 씨마스터는 제임스 본드의 영원한 파트너 역할을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오메가의 엄청난 역사 중 일부분인 씨마스터 컬렉션의 스토리를 살펴보았다. 오메가의 역사는 마린 워치 이외에도 시계의 역사 전반에 아우르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시계의 역사가 바로 오메가의 역사인 것이다. 어쩌면 스위스의 전통 예술, 혹은 박물관의 전시품으로 남았을지도 모를 기계식 시계에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은 오메가라는 브랜드다. 장인 정신이 필요한 하이엔드 기술을 대중적이지만 폭력 있게 구사하는 워치 브랜드는 많지 않다. 오메가의 '실리콘 헤어 스프링'이나 '코-액시얼 이스케이프먼트'와 같이 독창적인 구조의 무브먼트를 장착한 다른 워치를 비슷한 가격대에서 찾기 어렵다(어려운 이름의 이 두 가지 부품은 기계식 시계에 꼭 필요한 요소다). 가격적 정당성에서 오메가는 굉장히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오메가는 럭셔리하지만 대중적인 제품을 만드는 거대 브랜드다. 스위치 그룹에서도 허리를 든든히 받치고 있으며 볼륨도 크고, 상품도 다양하다. 우리는 이러한 브랜드 없이 기계식 시계를 이야기할 수 없다. 충분한 판매처를 확보하고 있고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절대 상사하지 못했다, 여성들에게까지 기계식 시계를 권하는 오메가의 박력을 다른 브랜드가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오메가의 꾸준한 투자와 연구가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좋은 품질의 기계식 시계를 손목에 착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수준 높고 안정적인 시계 브랜드로서 오메가의 가치는 지금도 유효하며 더 크게 성장할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time Changer

스위스 워치 브랜드 태그호이어(Tag Heuer)와 축구 선수 손흥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각자의 분야에서 최초, 최고의 자리를 거머쥐었다는 것. '혁신', '최초'라는 수식어가 늘 함께하는 태그호이어가 대한민국 축구의 희망이자 세계적인 축구 유망주인 손흥민과 의미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간 측정의 선구자, 태그호이어

1860년 창립자 에드워드 호이어(Edouard Heuer)가 스위스 샹티미에 마을에 시계 제조 공방을 세우면서 그 역사가 시작된 스위스의 전설적인 워치 브랜드 태그호이어. 스포츠 시계가 전무하던 시절 스포츠 시계를 전문적으로 생산한 태그호이어는 브랜드가 설립된 이래 수없이 많은 최초의 기록과 특허를 획득하며 1백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시간 측정 선구자의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최초로 진동 기어를 탄생시켰고, 조류의 수위를 측정하는 크로노그래프 위치를 발명한 것도 바로 태그호이어라는 사실. 자성으로 헤어스프링을 대체한 고주파 크로노그래프 위치와 벨트 구동 방식의 투르비용을 탑재한 시계도 이들이 아니었다면 요원한 제품과 기술일 것이다. 태그호이어는 혁신적인 기술과 더불어 정확성, 신뢰성, 그리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사명을 반영한 워치 컬렉션을 선보여 스위스 시계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인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에서 무려 여덟 차례 수상이라는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남자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 시계 브랜드로 항상 손꼽힐 만큼 남성 고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으며 특히 스포츠, 레이싱 선수들의 대표 워치로도 유명하다. 이는 태그호이어가 각종 스포츠, 자동차 협회, 대회와 좋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기 때문. 대표적으로 맥라렌과 F1 모터 레이싱 팀, 아메리카스컵의 오라클 팀 USA의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하는가 하면 가장 화려한 자동차 경주대회인 모나코 그랑프리도 후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강렬한 레이싱의 전설

태그호이어의 베스트셀러이자 대표적인 워치 컬렉션을 꼽자면 단연 '까레라(Carrera)' 라인이다. 1963년 3,300km에 달하는 멕시코 대륙을 횡단하던 악명 높은 까레라 파나메리카 나 멕시코 로드 레이싱의 전설을 듣게 된 태그호이어의 명예 회장 잭 호이어(Jack Heuer)는 드라이버와 모터 레이싱 마니아를 위한 특별하고 혁신적인 크로노그래프를 제작하기에 이른다. 스스로가 모터 레이싱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는 새로운 크로노그래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완벽히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범한 케이스와 가독성 높은 다이얼, 격렬한 주행에도 끄떡없는 충격 방지 기능, 방수 케이스 등의 기능을 갖춘 강렬하고 정교한 크로노그래프다. 그의 바람대로 까레라는 이 모든 요소를 담은 전설적인 메카니컬 매뉴얼 와인딩 크로노그래프를 탑재한 모습으로 1964년 이 세상에 첫선을 보였다. 까레라만의 우아하고 정제된 다이얼 디자인, 정확한 시간 측정과 품격이 묻어나는 특별한 오라로 70여 년 가까이 전 세계 남성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아왔으며, F1 모터 레이싱 팀, 페라리 팀의 클레이 레가초니, 니키 라우다 등 전설적인 드라이버들과 영광의 순간을 모두 함께했다. 태그호이어를 대표하는 또 하나의 아이콘 위치는 '모나코(Monaco)' 라인이다. 전설적인 배우이자 태그호이어의 홍보대사 스티브 매킨이 영화 <르망>에서 모나코를 착용한 이후, 대범한 사각형 케이스의 모나코 위치는 시대를 사로잡은 아이코닉한 시계로 자리매김한 것. 1969년에 탄생한 모나코 컬렉션을 새롭게 해석한 모나코 크로노그래프는 사각 다이얼과 클래식한 아가죽 스트랩,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로 제작한 다이얼, 무브먼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루 백 케이스까지, 모나코 라인만의 정통성과 고유 디자인을 담아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진정한 스테디셀러의 매력을 선사한다.



손흥민이 착용한 사각형 케이스의 가죽 밴드 시계는 태그호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워치.

태그호이어와 손흥민, 최초로 시작해 최고로 거듭나다

얼마 전 태그호이어의 홍보대사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새롭게 임명되었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라(Don't Crack Under Pressure)'라는 광고 캠페인에서 그는 마치 스파이더맨과 같은 자세로 공중에서 솟을 날리고 있다. 이 광고를 보면 떠오르는 사람은 한국 축구계의 희망이자 세계적인 유망주, 손흥민 선수다. 그가 존경하는 선수가 호날두여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의 직관적인 움직임과 폭발적인 순발력, 뛰어난 테크닉을 바탕으로 한 드리블과 강력한 슈팅 능력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많이 닮았다. 무엇보다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라'라는 문구에서 손흥민의 2011~2012년 시즌이 떠오른다. 그때 그는 팀 감독이 교체되며 주전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다. 필 기회가 많지 않으니 리듬이 깨졌고, 한번 흐트러진 리듬은 슬럼프로 이어졌다. 하지만 손흥민은 다음 시즌에 그런 어려움을 슬기롭게 이겨내며 부활을 알렸다. 티프하기로 유명한 독일 프로 축구 리그 분데스리가에서 그의 강인한 육체와 승리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증명해낸 것. 그 결과 독일 리그에서 4위 안에 드는 명문 구단이자 치범군이 젊은 시절에 소속되었던 바이엘 04 레버쿠젠이 구단 사상 최고의 이적료를 지불하며 손흥민을 모셔가기에 이르렀다. 손흥민에게 2013년이 바이엘 04 레버쿠젠에서 '최고로' 등극한 해라면 2010년은 그가 함부르크 SV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해다. 2010년 10월 30일, 18세의 어린 나이로 골을 터뜨리며 클럽 사상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다. 한 분야에서 최초의 자리와 최고의 자리를 모두 차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드문 일이다. 이런 점을 비추어볼 때 시계업계에서 수없이 많은 '최초', '최고'의 타이틀을 보유한 태그호이어가 손흥민을 이번 프로젝트의 모델로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손흥민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 지도자였던 아버지의 가르침만으로 축구를 배웠다. 손흥민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축구 지도자였던 아버지의 가르침만 에 몸을 실었다. 그때 그의 나이는 불과 16세. 어린 소년에게 느꼈을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

"태그호이어 덕분에 포말한 시계의 아름다움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다이얼 디자인도 세련되고, 다이얼이 큰 시계를 좋아하는 내 취향과도 부합한다."

지만 그는 소년에서 유망주로, 유망주에서 분데스리가의 에이스로 성장했다. 언젠가 분데스리가의 '득점왕'이 되고 싶다고 밝힌 손흥민은 앞으로의 포부를 이렇게 말한다. "난 언제나 꿈을 크게 가지려고 한다. 그 꿈을 좇아 매일 노력하니 꿈 자체가 내겐 원동력인 셈이다. 훗날 사람들에게 기술적으로 뛰어났을 뿐 아니라 성실하고 겸손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그의 성장이 누구보다 빨랐듯 가능성 역시 무궁무진하다. 더 발전할 게 있을지 싶은 선수지만 그는 기어이 더 높은 자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손흥민의 얼굴 위로 '어려움에 굴복하지 마라'라는 문구가 오버랩될지도 모른다. 문의 02-776-9018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Special Interview with son heung min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독일로 떠나 함부르크 유스 팀에 입단했다. 축구를 위해서였다지만 어린 나이에 걱정과 부담이 많았을 것 같다. 고등학교 생활을 할아 못하고 독일로 떠났다. 유학 프로그램은 나에게 좋은 기였지만, 그전까지 해외 경험도 없었고, 부모님 곁을 떠나 타지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어려움이였다. 도착해서도 언어 때문에 힘든 점이 많았다. 하지만 큰 선수가 되기 위해선 한 번쯤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장점으로 슈팅력과 스피드, 양발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테크닉을 얘기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은 무엇인가? 내 생각도 비슷하다. 평소엔 슈팅 연습을 많이 하고 정확성을 키우려고 한다. 나는 공격수이고 공격수는 그전까지 조금 부진했다라도 골을 넣어 경기에서 이기면 경기에서 제 몫을 다한 거다. 단점은 단점대로 극복하고 장점은 장점으로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하지만, 슈팅을 포함한 내 장점을 살리는 연습을 더 많이 한다. 어려움을 극복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본인의 해결 방법이 있다면? 축구 선수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 시즌 내내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골을 넣는 날이 있는가 하면 몸이 내 마음 같지 않은 날도 있다. 그러다 보면 정신적인 피로가 많이 쌓이는데, 그럴 땐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한다. 아버지도 예전엔 축구 선수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조언이 직접적인 해결책이 되진 않아도 심리적인 안정을 준다. 누군가와 내 고민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위트가 되고, 그것이 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안정감을 주는 것이다. 운동선수는 정신적인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데,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는 행운이다. 직접 착용해본 태그호이어 시계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 아무래도 운동선수가 보니 평소 스포츠 시계를 많이 찬다. 스틸 시계엔 관심이 없었는데, 태그호이어 덕분에 포말한 시계의 아름다움에 대해 눈을 뜨게 되었다. 다이얼 디자인도 세련되고, 다이얼이 큰 시계를 좋아하는 내 취향과도 부합한다. 챔피언스 리그 원정 경기를 비롯해 수트를 입을 일이 가끔 있는데, 그때 차면 멋질 것 같다. 태그호이어에서 특별히 고른 모델이 있다고 들었다. 까레라 라인인 특히 마음에 든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스포티한 느낌이 좋았다. 요즘 블랙 세라믹 베젤 모델을 많이 착용하는데, 다이얼 크기도 적당히 크고 남성미도 느껴져 잘 어울리는 것 같다. 태그호이어와 이번 촬영을 진행하면서 착용해본 시계형 모나코 크로노그래프도 신선했는데 놀라웠다.



손흥민이 착용한 세라믹 베젤의 모던한 시계는 태그호이어 까레라 칼리버 1887 크로노그래프 43mm 세라믹 베젤 워치.



(왼쪽부터) 태그호이어 까레라 칼리버 1887 크로노그래프 43mm 세라믹 베젤 워치, 태그호이어 모나코 크로노그래프 워치.

the women of Grace

2백70여 년이라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커로 명성을 공고히 다져온 브랜드 블랑팡. 'The Women of Grace'라는 테마 아래 여성 워치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이 세계 최초로 서울에서 진행됐다. 긴 역사를 대변하는 헤리티지 컬렉션부터 가장 진보된 기술력을 담은 뉴 컬렉션까지.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1

블랑팡 워치, 여성을 터치하다

1735년 탄생한 블랑팡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워치메이커로 시간을 기록해오고 있다. 2백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명의 워치메이커가 모든 제작 과정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방식을 고수한다. 퀴즈 쇼크로 대부분의 브랜드가 대량생산 방식으로 노선을 바꾸었을 때도 기계식 시계만 고집하며 브랜드 철학을 구축해온 블랑팡은 그만큼 전통과 원칙을 중시하는 브랜드다. 최초의 다이아몬드 워치인 피피티 패덤즈를 비롯해 클래식한 전통을 대변하는 빌레레와 레망, 엘-레블루션, 블랑팡 우먼 등 6개의 컬렉션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1930년대 이래 여성용 기계식 시계의 발전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블랑팡은 지난 7월, 최초의 여성 컬렉션 프레젠테이션을 서울에서 개최했다. 최신 모델부터 스위스에서 공수한 헤리티지 컬렉션까지 블랑팡 여성 워치의 모든 것을 소개했다. 1930년대에 처음으로 선보인 여성용 오토매틱 손목시계 '몰스'와 남성용 오토매틱 시계의 전유물이었던 플라야백 크로노그래프를 최초로 장착한 '우먼 플라야백 크로노그래프', 2001년 제네바 워치메이킹 그랑프리에서 최고상을 거머쥔 '레망 레이디 플라야백 크로노그래프' 등 여성 워치 역사에 기록될 만한 기념비적인 워치를 선보였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작은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장착한 '레이디버드'는 1956년 처음 등장했을 때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작은 손목만 한 다이얼에 담긴 인빅스와 시침의 정교함은 블랑팡의 창조성과 심미안을 보여준다. 이 같은 제품들을 통해 과거의 영광을 가득 담고 모던하게 재해석된 블랑팡의 여성 워치의 매력은 역시 가나인 역사와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로맨틱한 모티브와 우아한 곡선의 하모니

헤리티지 컬렉션에서 역사적 감동을 느꼈다면 뉴 컬렉션을 통해서도 블랑팡 여성의 감성을 자극하는 데도 탁월한 솜씨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레트로 그레이드 캘린더와 문페이즈 창을 시작으로 배열한 블랑팡 우먼 레트로그레이드 캘린더는 레드 골드 베젤에서 40개의 다이아몬드가 화사한 빛을 발한다. 엑스트라 화이트, 무지개빛, 진주빛 등 각기 다른 네 종류의 자개로 이루어진 다이얼에서는 신비로운 광채가 느껴진다. 블루 핸즈의 끝에 달린 별과 로터 위의 꽃잎, 12시 방향의 문페이즈가 아름다운 조화를 이뤄 여성을 위한 시계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섬세한 베일을 쓴 여성을 연상케 하는 '블랑팡 우먼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데이트'는 자계 다이얼, 화이트베젤, 다이얼을 두 구역으로 나눈 물결 형태의 곡선이 특징이다. 새로



1 블랑팡의 뉴 여성 워치 컬렉션. 블랑팡 우먼 레트로그레이드 캘린더, 블랑팡 우먼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데이트, 블랑팡 우먼 레트로그레이드 캘린더와 블랑팡 우먼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데이트의 뒷면에는 꽃잎 모양으로 인그레이빙 된 로터를 볼 수 있다.



은 크로노그래프 그랜드 데이트 제품에는 블랑팡 매뉴팩처에서 제작한 칼리버 26F8G를 탑재했으며, 4백95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진 셀 프와인딩 무브먼트를 적용했다. 투명한 사파이어 백 케이스를 통해 무브먼트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이 풍성하고 호화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 레트로그레이드 캘린더와 마찬가지로 로터에 꽃잎 모양을 새겨 뉴 컬렉션의 맥락을 함께한다. 헤리티지 컬렉션부터 현재를 대변하는 뉴 컬렉션까지 이어지는 프레젠테이션은 오랜 전통과 혁신에서 비롯된 블랑팡의 미적인 아름다움과 기술력의 진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로 기억될 것이다. 문의 02-3467-8426 에디터 배미진, 이예진

the greatest Love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가 드디어 국내에 브라이덜 컬렉션을 선보인다. 아름다운 약혼반지와 결혼반지 컬렉션, 과감한 세팅의 솔리테어 링까지 다이아몬드의 찬란함을 느낄 수 있는, 오직 신부만을 위한 주얼리.

1

웨딩을 위한 가장 멋진 보석, 그라프

다이아몬드는 자연이 창조한 가장 완벽한 물질로,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선별한 완벽한 다이아몬드를 선택한다면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의 생애를 빛나게 할 더할 나위 없는 증거가 된다. 고대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랑의 신 큐피드가 한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화살 끝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다고 전해진다. 희소성, 영원불멸함, 순도 높은 아름다운 정확한 커팅을 통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다시 태어난다. 까다롭게 다이아몬드를 선별하는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의 독특한 실루엣을 살리기 위해 뛰어난 보석 세공술을 바탕으로 수공업으로 제품을 제작한다. 그 어떤 것도 똑같은 디자인은 없다. 그라프의 명장인 마스터 링 마운터(Master Ring Mounter)는 빛을 알맞게 통과시키고 본연의 반짝임을 최대한 구현하도록 플래티넘 마운트에 보석을 정확히 안착시킨다. 전통적인 솔리테어 링부터 최상급 플래티넘은 물론 유색 보석 링도 마찬가지다. 그라프의 브라이덜 컬렉션은 스타일리시한 에메랄드 컷, 클래식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로맨틱한 하트 셰이프 컷, 우아한 바게트 컷, 독특한 마키트 컷, 심플한 프린세스 컷, 세월이 지나도 사랑받는 클래식한 페어 셰이프 컷 등 뛰어난 광채를 선사하는 다양한 컷을 선보인다. 웨딩 링을 선택할 때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을 제안받은 신부라면 그라프에서 새로운 웨딩 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라프만의 차별화된 브라이덜 컬렉션

가장 순수한 디자인의 그라프 파라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인 D 플러리스(flawless) 다이아몬드인 파라곤(Paragon)에서 영감을 받았다. 그라프 프라미스 역시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다이아몬드인 레소토 프라미스(Lesotho Promise)에서 모티브를 얻어 눈부신 메인 스톤 양쪽에 펜시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볼륨감이 느껴진다. 페어 셰이프의 매력을 한껏 살린 그라프 플레임(Graff Flame),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살포시 올린 클래식한 그라프 레거시(Graff Legacy), 끝없는 사랑을 의미하는 그라프 컨스텔레이션(Graff Constellation)과 그라프 트윈 컨스텔레이션(Graff Twin Constellation)은 마치 은하수처럼 영롱하게 빛난다. 그라프는 신부를 위한 하이 주얼리로 엘리스 헤어밴드 컬렉션을 선보이는데, 그라프 다이아몬드가 가장 최근 선보인 주얼리 장식 컬렉션 중 하나다. 다이아몬드 39개를 일렬로 세팅한 눈부신 엘리스 헤어밴드는 총 40개의 다이아몬드로 그라프의 마스터 장인이 정교하게 작업했다. 보다 섬세한 플로럴 모티브 엘리스 헤어밴드 컬렉션은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로 식물의 줄기, 어린 잎, 꽃잎 등을 묘사해 더욱 화려하다. 그라프의 CEO 프랑수아 그라프는 "지난 5년 동안 화려한 다이아몬드 티아라에 대한 전 세계 고객들의 수요가 급증했기에 이러한 컬렉션을 선보였다"라고 이야기한다.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링부터 다이아몬드의 절정을 보여주는 티아라까지, 심오하고 독창적인 세팅 기술로 탄생한 그라프의 브라이덜 컬렉션은 다이아몬드의 순수하고 무결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2256-6810 에디터 배미진



1 최고의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그라프 웨딩 링 컬렉션. 2 1.37캐럿 레디언트 컷 옐로 다이아몬드를 인체적으로 세팅한 링. 영모습도 아름답다. 3 클래식한 3.17캐럿 라운드 다이아몬드 링. 4 파라곤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그라프의 상징적인 웨딩 링. 5 그라프의 유려한 다이아몬드 링. 6 여성미를 극대화한 1.2캐럿 트윈 컨스텔레이션 세팅 링.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TCO 밴드 링, 티파니 로고와 작은 2개의 다이아몬드 세팅이 우아한 시그처 컵 링, 대중적인 편서드 브랜드 고유의 가치를 잘 드러내는 모델이다. 로즈 골드와 플래티넘 중 선택할 수 있다. **아틀라스 파인스트 밴드 링** 로마숫자에서 영감을 얻어 유니크하게 완성한 새로운 디자인의 컵 링, 18K 로즈 골드 소재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포인트로 세팅해 주얼리 브랜드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 **일그라인 링** 소재를 조합하는 디자인으로 심플한 컵 링을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반지의 위와 아래 작은 원형을 세심하게 세공했다. 플래티넘, 그리고 플래티넘과 18K 옐로 골드 콤비 중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모두 **티파니**.

true Love

1837년 뉴욕에서 탄생한 세계적인 주얼리 하우스 티파니는 지난 1백77년간 시대를 초월하는 디자인으로 사랑받고 있다. 평생을 약속하는 사랑의 고백, 그 순간을 빛내줄 고귀한 언약의 징표, 티파니 웨딩 링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아래부터) **티파니 노보** 1878년 티파니가 소개한 128.54캐럿의 옐로 다이아몬드는 티파니 다이아몬드에서 영감을 받은 노보 링, 모던한 디자인의 노보 링에 심플한 디자인의 노보 밴드 링을 매치했다. **티파니 솔리스트** 쿠션 컷 다이아몬드 주변에 브릴리언트 다이아몬드를 비즈 세팅해 볼륨감을 강조한 엔드포인트 디자인의 웨딩 링, 가장 클래식한 밴드 링을 더했다. **티파니 하모니** 티파니 웨딩 링 중 최신 버전의 모델, 다이아몬드를 중심으로 양쪽에서 모아지는 밴드 디자인은 사랑하는 연인의 로맨틱한 조화를 상징한다. 역시 같은 라인의 하모니 밴드 링을 레이아웃했다. **티파니 세팅** 상영이 필요 없는 가장 클래식한 웨딩 링, 세계 최초로 6개의 프팅이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들어 올려 투과율과 광채를 극대화했다. 1886년 첫선을 보인 아래로 전설적인 디자인으로 자리 잡았다. 세이브 프롬 밴드 링을 매치해 우아함을 더했다. 모두 **티파니**, 문의 02-547-9488, 에디터 **배이진**

most Desired

할리우드 영화와 항공의 역사를 기록해온 해밀턴이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레톤 레이디의 뮤즈로 배우 유인영을 선정했다. 도회적인 세련미를 갖춘 그녀와 최신 스위스메이드 기술력을 응집한 해밀턴 위치의 아름다운 만남.

해밀턴 위치를 뒤흔치는 아름다운 심장, H-20-S

18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랭커스터에서 역사를 시작한 해밀턴. 아메리칸 스피릿에 최신 스위스 무브먼트를 결합한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보이며 미국을 대표하는 대중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혁신적인 디자인으로도 잘 알려진 해밀턴은 4백여 편에 달하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항공과 철도 시계 분야의 역사를 함께 써왔다. 일찍이 항공사의 공식 타임키퍼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분야의 레일로드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을 만큼 정확성은 곧 해밀턴을 수식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자체 개발한 무브먼트의 비율을 계속 늘려나가며 해밀턴만의 독자적인 기능을 선보이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해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H-20-S 스키텔레톤 무브먼트는 뉴 컬렉션,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레톤 레이디와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레톤 젠트를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사용되어 기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장인 정신과 정확성으로 스키텔레톤의 테마를 재현한 H-20-S는 스키텔레톤나이즈 다이얼 뒤에서 시계가 숨바꼭질하는 듯한 형태를 보여준다. 깔끔하게 마무리한 스키텔레톤나이즈 회전추와 회전자, 각 부분에 정교하게 새긴 'H' 장식까지 현대적인 요소를 더해 디자인 측면에서도 완성도를 높였다.

기술과 디자인의 완벽한 결합을 보여준다

배우 유인영이 뮤즈로 나선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레톤 레이디의 앞에서 설명한 H-20-S 스키텔레톤 무브먼트를 담은 뉴 컬렉션이다. 얼마 전 촬영을 끝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기황후>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유인영의 도회적인 세련미는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레톤 레이디의 모던한 아름다움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화이트 슬리브리스 톱과 재킷으로 연출한 스타일링은 지극히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36mm 케이스에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 빛 반사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털을 적용한 이 위치의 영감을 꽃에서 비롯되었다. 현대적 줄 세공 효과로 단순한 원형을 넘어 다양한 모양과 무지갯빛이 영롱한 화이트 컬러의 다이얼을 볼 수 있다. 가스다란 인텍스, 루비 레드 안감의 가죽 스트랩 역시 꽃잎을 연상케 하는 요소다. 오픈형 백 케이스를 통해서 개방형 로터와 배럴 드럼, 메인 브리지의 아름다운 움직임을 볼 수 있으며, 시계를 액세서리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여성을 위해 이지 클릭 스트랩 기법을 적용했다. 그녀의 옷차림과 기분에 따라 밴드를 교체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여성용과 동일한 무브먼트를 사용한 남성용 워치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레톤 젠트'도 함께 출시했다. 강인한 면모를 보이는 젠트는 어두운 곳에서도 가시성을 높여주는 슈퍼-루미노바 소재 아광 인텍스를 사용해 보다 역동적으로 완성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같은 심장으로 시간을 기록하며 '솔 메이트'로도 불리는 이 두 제품은 모던한 컵 위치를 원하는 이들에게 완벽한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문의 02-3149-9593, 에디터 **배이진**



1-5 인스타그램 촬영한 <별에서 온 그대>, <기황후> 등 두 편의 드라마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낸 배우 유인영이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레톤 레이디의 뮤즈로 7개월 앞에 섰다. 화이트 슬리브리스 톱과 재킷에 매치한 해밀턴 위치가 무척 모던한 느낌을 준다. 2-4 36mm 케이스, 빛 반사 방지 사파이어 크리스털, 해밀턴의 독자적인 무브먼트 H-20-S를 담은 재즈마스터 뷰메틱 스키텔레톤 레이디는 소재의 조합에 따라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이지 클릭 스트랩 기법을 적용해 밴드를 교체할 수 있다. (사진 순서대로)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루비 레드 안감의 화이트 레더 스트랩, 스테인리스 스틸과 로즈 골드 도금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기운데 유티티 시계 방향)로 **클리닉스 하이드라 핑치 인텐시브 바이오페이츠 세럼** 오일과 수분을 1:4 비율로 담은 기능성 수분 트리트먼트. 무나진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회복되어 피부 보호력이 견고해진다. 수분이 밀라베리 지인도록 피부 스스로 적당량을 유지하는 힘을 길러준다. 30ml 7만8천원. 문의 02-3014-2916

SK-II 피어셜 트리트먼트 에센스 천연 발효 대사액인 피타라™를 90% 이상 담은 워터 타입 에센스. 자외선에 하루 종일 노출된 날이나 얼굴결이 칙칙할 때 화장실에 충분히 적셔 올려두면 빠르게 진정된다. 미스트에 넣어 수시로 뿌리는 것도 피부 온도를 낮추는 방법이다. 75ml 8만 원대. 문의 080-023-3333

에스티 로더 스킨스 릴리프 아이 마스크 자외선에 손상된 눈에 즉각적으로 영양을 공급하는 10분 트리트먼트 마스크. 피로의 흔적과 부기를 잠재우는 데 도움을 준다. 해변으로 떠나는 여름휴가에 유용하게 쓰일 아이템이다. 10장 3만5천원대. 문의 02-3440-2772

비오템 아이쿠아시스 수분 앰플 에센스 건조함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수분으로 채운 광채를 선사하는 에센스. 피부와 구조가 유사한 활성 스파 플랑크톤에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성분 등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지친 피부에 생기를 되찾게 한다. 50ml 7만7천원대. 문의 080-022-3332

셀화수 청운수링 팩 트윈 태랑과 알에 손상된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여 수시간에 피부를 진정시키는 한방수링 팩. 염에 좋은 생마실 추출물이 피부의 건조를 빠르게

해소한다. 울린, 리벤더 등 식물성 에센셜 오일이 들어 있어 잠 못 이루는 열대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다. 80ml 4만2천원대. 문의 080-023-5454

시세이도 이부키 아이 코렉팅 크림 연약해진 눈가에 힘을 길러주는 콜린 아이크림. 식물 성분과 비타민 유도체가 잔 주름을 개선하고 붓는 것을 막는다. 여기에 더해진 인분성 파우더는 다크서클을 예방해 눈가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준다. 15ml 5만8천원. 문의 080-564-7700

다들 르그랜드 마스크 벨벳 같은 풍부한 텍스처가 일일인 산소 마스크. 피부의 진피와 표피세포가 원활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피부 상태로 되돌린다. 특별히 고안한 앰플리케이팅을 이용해 크림 대신 등록 바르고 지면 피부 속에서 트리트먼트받은 듯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0ml 26만 원. 문의 02-3438-9631

건조기 유포릭 아이스젤리 클렌징 젤 플렌트 워터와 인삼 추출물로 이뤄진 차가운 젤 텍스처가 피부에 활력을 더해 주는 것은 물론, 메이크업을 깔끔하게 지워준다. 화장실에 들어 지우면 후 물로 마무리하면 자극 없이 세안할 수 있다. 차갑게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150ml 3만5천원. 문의 080-344-9500

카텔 올트라 하이센스 오일-프리 젤 크림 멘톨 유도체의 쿨링 효과 덕분에 비르는 즉시 피부 온도를 낮추는 콜링 젤 크림. 인공 향료와 색소를 넣지 않아 민감한 피부를 편안하게 다독여준다. 병화 당단백질 추출물과 사막 식물 추출물이 수분이 달라지지 않도록 오랫동안 붙들여준다. 50ml 3만9천원대. 문의 080-022-3332 에디터 **이예진**

facial Comforts

땀과 피지로 얼룩진 피부에 얼음처럼 시원한 청량감을 안겨줄 쿨링 화장품이 필요한 순간.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메이크업을 위해 반드시 나스(NARS)를 원하는 이유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에디터와 스타일리스트는 물론 유명한 여배우들까지 메이크업을 할 때 나스 제품을 선호한다.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에게 나스는 트렌디한 메이크업은 물론 가장 아름다운 피부 표현을 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스타일 조산(조)의 권유된 뷰티 에디터는 "나스의 모든 제품은 발색이 정확해요. 눈에 보이는 컬러를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나스를 좋아하죠"라고 이야기한다. 평소 자연스럽지만 세련된 메이크업을 즐기는 스타일리스트 유현정 실장 역시 나스 매장의 웨이팅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본 경험이 있다. "원하는 컬러의 제품을 사려면 꽤 오래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주로 양구정동 갤러리(이)백화점 매장에서 구매하는데, 아이섀도우와 립 펜슬 같은 제품은 반드시 나스 제품이어야 해요. 텍스처나 컬러의 완성도 때문에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없으니까요." 이렇듯 나스의 마니아들이 최근 열광한 제품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랑수아 나스의 상상을 그대로 반영한 나스 듀얼 인텐시티 (이) 섀도우(Dual-Intensity Eyeshadow), 특수 제작된 젯 앤 드라이(Wet & Dry) 텍스처 덕분에 건조한 상태에서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살짝 물에 적셔 사용하면 강력한 아이러이너를 연출할 수 있다. 물론 창의적인 텍스처와 심플한 텍스처, 우아한 색상 등 모든 것은 나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프랑수아 나스의 아이디어이다. 브랜드 창립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화보를 완성하는, 현재진행형의 아티스트에게 이 독특한 제품을 헌상할 수 있었다. 프랑수아 나스는 "트렌디하면서도 클래식한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젯 앤 드라이 포뮬러는 그레피한 룩을 연출하고자 하는 여성들이나, 서로 다른 셰이드와 텍스처를 이용해 깊이 있는 룩을 연출하고자 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에게도 적당해요. 마치 옷장의 옷을 고르듯이 얼굴에 어떤 빛을 부여하고 싶는지 쉽게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라고 이야기한다.

밝아줄 수 있는 별처럼 아름답게 빛나는 시머링

일단 듀얼 인텐시티 아이섀도우의 장점 중 가장 칭찬할 만한 점은 텍스처가 깃털처럼 가볍다는 것이다. 눈가 피부가 예민하기 예 가벼우면서도 밀착력이 뛰어난 텍스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특히 사랑스러운 핑크 피치 컬러의 유로피와 메탈릭한 샴페인 베이지 컬러의 디오네 아이섀도우는 눈에 타지 않는 것만으로도 피부 전체에서 윤기가 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광채를 완성한다. 다른 컬러와 믹스하면 더욱 풍부한 컬러감을 선사하기에 베이스로 활용해도 훌륭하다. 일반적인 아이러이너 컬러와는 다른 새로운 컬러를 원한다면 진한 블랙 컬러의 시크리스, 환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자수정 컬러의 포이베, 혹은 테스테오노도 재킷이다. 빛에 따라 은은하게 달라지는 오묘한 색감도 매력적이다. 아이섀도우 선택 컬러인 컬러리스트를 젯 앤 드라이 아이섀도우 브러쉬 #49에 물을 가볍게 적셔 사용하면 강렬한 터치와 섬세한 라인, 부드러운 컬러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속눈썹 사이사이를 채우는 아이러이너와 같은 섬세한 표현까지 가능하다. 1.5g 3만8천원. 문의 02-6905-3747 에디터 **배미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오네, 유로피, 테스테오노, 컬러리스트

dual Effect

파우더의 은근한 아름다움과 아이러이너의 강렬함을 모두 갖춘 새로운 텍스처의 아이섀도우, 나스 듀얼 인텐시티 아이섀도우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